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박해받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10월 6일 (토) 제 1701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비난 아닌 관계의 폭 확장하는 지혜 요구

CT, 국제 종교옹호단체들 비판에도 터키 이란 크리스천이 신앙의 자유 얻기 위해 치르는 대가 소개

올해 앤드류 브런슨 목사(Andrew Brunson)가 터키에서 비참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수천 명의 이란인들은 사형 집행을 면했다. 두 사례 모두에 한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국제 옹호 활동(international advocacy)이 그것이었다.

미국인 목사 브런슨은 2년 전 터키 군사 쿠데타 직후에 체포됐다. 그는 이즈미르(성령의 서머나)에서 20년을 목회하고 있었다. 터키 정부는 브런슨 목사가 쿠데타의 배후 조직과 연계됐다고 주장했다.

쿠데타 배후로 지목된 무슬림 조직의 수장인 페틀라 고틀렌은 오래 전부터 펜실베이니아에 거주하고 있었다. 터키는 레제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적인 고틀렌과 브런슨 목사의 맞교환을 요구했다. 브런슨이 구금되자 많은 종교자유 옹호 활동가들이 들고 일어

났다. 그러나 백악관이 브런슨 목사를 적극 옹호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은 국제적 관심사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격렬한 논쟁을 벌인 것을 포함해, 브런슨 목사를 당장 석방하라는 옹호 단체들이 큰 소리를 냈지만, 결국 브런슨 목사는 아직까지도 구금 중이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 이집트 특파원, 제이슨 캐스퍼(Jason Kasper)는 터키나 이란 현지에서 소수 그룹으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도해준다(The Cost of Religious Freedom: When advocacy for persecuted Christians harms their fellow believers). 오히려 정부나 국제 종교적 자유 옹호단체들의 압박이 크리스천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역설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미국 국무부가 주관한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국제회의' 석상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터키가 이 무고한 성직자를 즉각 석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그가 석방될 때까지 터키에 중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펜스 부통령의 경고가 나오기 하루 전에 터키는 브런슨을 구치소에서 석방하는 대신에 가택 연금에 처했다.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어느 쪽이 약속을 어겼든, 에르도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신랄한 말싸움을 주고받았고 그 뒤에 경제 제재가 이어졌다. 동시에, 가까운 시일 내에 브런슨 목사가 풀려날 기회도 멀어졌다.

한편, 5000명의 이란 수감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게 됐다. 유엔과 인권단체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압박을 받고 있던 이란 의회가 소량 마약 밀매사범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을 개정했다.

마약 밀매사범에게는 성공한 옹호활동이 왜 브런슨 목사에게는 실패했을까?

"옹호 활동을 하는 크리스천들은 부당한 구금에 어떻게 대응할지 항상 갈날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합니다." 마크 브래들리가 말했다. 그는 이란 기독교에 관한 세 권의 책을 쓴 작가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로부터 되도록 많은 지지를 받고



싫어 합니다.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공보실장 토드 네틀턴은 일부 탄압 받는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을 탄압하는 정부가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기를 바란다며 말했다. 그러면 자국 정치인들이 제도를 바꿀 수도 있고, 국민들이 들고 일

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68개국에서 활동한 경험을 있는 네틀턴은 국제 사회의 제재로 종교자유에 대한 족쇄가 풀린 사회는 복음에 열린 사회가 되고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크리스천들은,

그들이 옹호 활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든, 적대적이고 억압적인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그들 편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오픈도어선교회' 데이비드 커리 대표는 이 사역 기관이 마주하는 사건의 99%가 뉴스가 되지 못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사건도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오픈도어선교회는 개별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큰 맥락에 초점을 맞춘다. 오픈도어선교회는 해마다 크리스천들을 가장 심하게 탄압하는 50개 나라를 선정해 발표한다. (3면으로 계속)

리더십은 "희생"의 구체적 실천이다.

리더십저널, 존 맥스웰의 '진정한 리더 되기' 위한 희생법칙 소개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 만든 "칼레의 시민"이라는 군상이 있다. 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백년전쟁 때 프랑스의 칼레를 구한 6명의 영웅적 시민들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조각상이다. 1347년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이끄는 영국군은 프랑스 북부의 항구도시 칼레를 점령했다. 1년 가까이 저항한 시민들은 학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그때 시장을 비롯한 6명이 칼레를 구하기 위해 교수형을 각오하고 스스로 목에 밧줄을 감고 에드워드 앞으로 출두했다. 6명 모두 풍요로운 삶을 누리던 부유한 귀족들이었다. 에드워드 3세는 이들의 희생정신에 감복해 모두 사면했고 칼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한 가지 오해가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직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얻게 되는 지위, 특권, 권력이 리더십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 정상에 도착하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 밖에서 보면 리더의 삶은 대단히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리더십은 희생을 요구한다. 리더로서 성장하려면 희생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우리는 너무나 많은 리더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조직을 제멋대로 이용하고, 그 결과 그들의 탐욕과 이기주의가 나라와 기업의 추문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았다. 존 맥스웰(John Maxwell)은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희생의 법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리더는 하고픈 일 포기하는 '기회의 상실' 더 큰 영향력 갖기 위해선 희생도 커져야

첫째, 희생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위한 과정에 희생을 치른 사람들이다.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은 "잃은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인생이란 어쩌면 한 가지를 다른 무엇가로 바꾸는 과정의 연

속일지도 모른다.

뛰어난 리더는 '최고(what is best)'를 위해 '많고 좋은 것(much that is good)'을 희생한 사람이다. 이것이 희생의 법칙이 움직이는 방식이다.

둘째, 리더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희생하라.

(3면으로 계속)



시론
은희근 목사



2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13면
선교의 창
송종록 목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사(DCM-온오프믹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선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선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경 / 성회 책자 / 기온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유료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유료 (평생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액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현수막 | 천막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프로모션 상품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롤업배너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현수막
미주한인교회 송구영신예배
2017.12.31 주일 저녁 10시 30분 비전센터 분당
성탄 축하예배 Merry Christmas
2018 교회표어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
나만 기도하면 내리는 기사가 없고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내리가 임부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5)



시론

카무카무 우에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도적 세 명이 부자집으로 도둑질하러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금과 현금이 많았는지 각각 큰 자루에 한 자루씩 짊어지고 산속으로 와보니 한 자루에 10만불 정도씩 들어 있었습니다. 세 명은 한 자루씩 똑같이 나누기로 하고, 헤어지기 전에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이 어린 도적이 술을 사러 내려간 사이, 두 명이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놈을 죽여 버리면 10만불씩 가질 것을 15만불씩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둘은 어린 도적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술을 사러 간 어린 도적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두 도적만 죽여 버리면 내가 10만불이 아니라 30만불을 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술을 사서 목욕을 탔고, 태연하게 올라왔습니다. 기다리던 두 도적은 어린 도적을 보자마자 목 졸라 죽였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 15만불씩 나눠 갖기로 하고 사이좋게 술을 나누어 마셨지만, 얼마 후 둘 다 죽었습니다. 결국 도적 3명은 다 자기 욕심을 부려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되돌아옵니다(탈무드 이야기 중 하나). 이들의 결말은 이들 스스로가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 죄를 낳았고 결국은 자라나 사망하고 맙니다. '욕심'이 '원인 출발'이 되어 결국 '사망의 종착'에 닿고 맙니다.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죄성인 원죄를 성경은, 천지창조 다음에 곧바로 에덴동산을 통하여 전해줍니다. 공사장에 구멍을 뚫어놓고 들여다보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를 지나치면서, 꼭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면 벽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뵈봐!"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합니다. 다 주고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한 가지 하려고 목숨 겁니다. 여자에게는 먹지 말라는 그 열매가 더 보양적도, 더 먹음직도 해 보입니다. 여자가 먼저 따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합니다. '공범은 외롭지 않다'에 충실했습니다. '공범'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원죄자'와 '공범자' 둘이 같이 도망가 인류 최초의 패선인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자기를, 자기 죄를 가리는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들에게 인류 최초의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 대명사'입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에서 '어디'는 질 코드 가 아닙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라고 하십니다.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때 아담은 '회개'보다 '죄에 대한 변명'을 시작합니다. 아담은 '먹은 게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저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 '알고도 알고 지나가는 죄'(Transgress)라고 말합니다. 뻔히 죄인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익스큐즈' 하면서 밟고 지나가는 'Transgress'를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실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범하며 살고 있나요. '사람과 세상에 익스큐즈' 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거꾸로 '하나님께 익스큐즈'하면서 사람과 세상을 따르며 인심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들 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짚으시자 아담은, 사람은 말합니다. "두려워 숨었노라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에게 먹지 말라하신 열매를 취 먹었노라고" 변명을 시작하는데 뉘앙스는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만 이 여자 때문에" 그러자 여자가 같은 뉘앙스로 변명합니다. "저 뱀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것은 '변명'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인정'과 '케도수정'입니다. 상황과 처지와 형편 그리고 사람과 세상이 나를 어떻게 유혹할지라도, '변명'은 '변명'일 뿐 결국 저지른 것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마귀는, 악한 영은, 어두운 영은, 불의의 영은, 거짓의 영은, 탐욕과 음란의 영 등등은 '나의 가장 약한 곳'을 치고 들어옵니다. 다른 거는 아무리 쳐도 넘어지지 않지만 '그거'는 푹만 건드려도 넘어집니다. '나의 그곳, 가장 약한 거'를 약한 영들은 나보다도 더 잘 알기에 항상 그곳을 노립니다. 바로 내가 항상 항상 들어섰던 그 자리, 넘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대해 더 철저히 스스로 연단하고, 훈련해서 보강, 또 보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후, 인생의 여정은 '실낙원'에서 '복낙원'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공생애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4:17) 무화과나무로 가리지 말고, 공범 만들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라! 그리고 천국을 회복하라!'는 '복낙원'의 매시지였습니다. 이 모든 원죄들,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보편적 죄성들에서 벗어나려면 사도바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길이 없다고 단호합니다(롬7:15-25).

맞습니다. 더불어 우리를 스스로도 노력해야 합니다. 원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결국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 사망'(약1:15)에 이르기에 '욕심'을 다스리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3명의 도적들도 자기들의 바람과는 달리 모두 다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원인으로 바로 '탐욕, 욕심'입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탐욕과 욕심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눔"입니다. "욕심"은 "혼자이고 결국 죽음"이지만 "나눔"은 "함께 함이고 결국 생명"입니다. 우간다 말로 '카무카무 우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 하나가 모여 다발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한 마음으로 뭉치면 엄청난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마음으로 뭉치게 만드는 촉매가 "함께 나눔"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나누는 "카무카무 우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와 '주의 부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Blessing!

pastor.eun@gmail.com

말할 수 없는 아픔, 주님께 드리고 사역의 바다로!

처치리더스.컴, LA 오아시스 교회 담임 필립 와그너 목사가 말하는 상처 입은 목회자의 남다른 고충들

작고한 리더십 선구자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미국에서 가장 힘든 네 가지 직업' 중에 하나를 목회자라고 밝혔다(미국 대통령, 대학교 총장, 병원장, 그리고 목회자). 사실인가? 목회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람들을 이

끌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친다. 이것은 꿈의 직업이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하고, 운동을 잠깐 하고, 설교할 수 있다. 필자(필립 와그너, Philip Wagner)는 목회자로서 정말 이걸 원한다. 그러나 진실로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The Secret Pain of Hurting Pastors).

목회자가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실제로 목회자는 하루 24시간 한 주 7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며 특별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어떤 목회자는 다른 사람들을 돕느라 소진된다. 어떤 목회자는 너무 목회에 빠져 자신의 가족에게 상처를 입힌다. 어떤 목회자는 목회와 개인적 삶을 둘 다 잘 해 나간다. 미국의 약 85%의 교회는 교인수가 200명이 안 된다. 60%는 100명이 이하



비판 속 숨겨진 진실에게 배워야 · '두터운 피부와 부드러운 심장' 갖기 상처 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방법 찾아야 · 진정한 동역자는 필수

다. 바나그룹(Barna Group)의 설문에 따르면, 미국 평균 교인수는 89명이다. 일손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다. 많은 상황에서 목회자는 성경 교사, 회계사, 전략가, 예언자, 컴퓨터 기술자, 상담자, 연사, 예배 책임자, 기도의 용사, 멘토, 리더, 교육자, 기금모음 활동가가 돼야 한다.

이런 단순한 질문은 목회자로 하여금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 "아, 좋아. 그래서 어떡하라고?" 목회자는 개인적으로 너무 비판을 받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비판 속에 숨겨진 진실로부터 배워야 한다.

2. 거부

누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을까? 목회자 90%가 자신이 입문하기 전에 예상했던 것과는 목회가 전혀 달랐다고 밝혔다. 목회자 60%는 자신이 입문할 때보다 현재 더 낮은 자아상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된 것을 정말 좋아한다. 필자는 훌륭한 스텝들이 있다. 교회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좋은 때를 지나든지 어려운 계절을 지나든지 상관없이 만족한다. 물론, 상황이 좋다면 '만족하기'가 훨씬 더 쉽다. 필자는 목회자인 친구들이 있고, 결혼생활은 공고하고, 목회의 시간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됐다. 그럼 이제 "목회자가 겪게 되는 특별한 문제" 즉 남에게 차마 속시원 하게 털어 놓을 수 없는 비밀들을 살펴보자.

사람들이 떠나고, 인도자가 떠나고, 목회자의 친구들이 떠난다. 사실 사람들은 떠난다.

작은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떠날 때 더 확실해진다. 어떤 이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 떠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은혜가 만족되지 않아서' 떠난다. 이들은 역시 수천 명이 다니는 큰 교회로 떠난다.

사람들은 제이크스(T.D. Jakes) 목회자를 떠나고, 앤디 스탠리(Andy Stanley)의 교회를 떠난다.

필자의 교회가 150명쯤이 되고 사람들이 떠날 때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했다. "여기 오아시스 교회에 수십 명 단위로 떠나고 있을 수 있지만, 수천 명이

잭 헤이보드(Jack Hayford) 교회에서 떠났지만, 그는 훌륭한 목회자야. 이견 잠깐일 뿐이야."

"저 떠나요." "더 깊어지고 싶어요." "충족되지 않아요." 이런 말은 개인적인 거부감으로 느껴진다.

모든 목회자는 이런 얘기를 들어왔다. "여기서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빌 하이벨즈(Bill Hybels)도 이 얘기를 들었다. 웨인 코르데로(Wayne Cordero), 디노 리초(Dino Rizzo), 에드 영(Ed young), 크레이그 그로스셸(Craig Groeschel), 스티븐 퍼틱(Steven Furtick), 매슈 바넷(Matthew Barnett)도 들었다.

정말로? 만족스럽지가 않는다고? 이런 교회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루기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는 '두터운 피부와 부드러운 심장'을 가지는 것이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가깝게 안아주고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예, 알겠어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3. 배신

(1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 편집국장:유원정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성서신학, 기독교교육학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비난 아닌 관계의 폭 확장하는 지혜 요구

(1면에서 계속)
이란은 10위에, 터키는 31위에 올라 있다.
최근 오픈도어선교회의 기독교 탄압 국가 11위에 오른,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이기도 한 인도에 대해 미국 정부는 탄압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커리는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다.
브래들리는 이란의 크리스천들을 위한 “강력한 옹호”의 필요성을 확신 하면서도, 외부인들이 해야 할 다른 측면의 일이 있다고 말한다.
“세계 교회의 핵심적인 의무는 이란 정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모든 이란인들이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의 큰 줄기는 무슬림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브래들리는 말했다. 그가 이란 기독교에 대해 쓴 세 권의 책 중 하나는 “Too Many to Jail(교도소에 보내기에는 너무 많은 크리스천)”이다. 이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가 있건 없건,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정치적 전술들이 크리스천들의 처우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도 아니다. 2016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 협정 및 제재 보류’에 서명하고 일년 만에 이란이 또 다시 크리스천들에 대한 일제 단속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국제 사회에 드러났다. 당시 이란은 크리스천 79명을 체포했다.
브래들리는 미국 쪽의 협정 위반으로 새로운 탄압의 파도가 밀려오지 않을까 걱정한다. 제재는 경제를 위기에 빠트린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국가들은 자국 안에 있는 소수자들에게 화살을 돌린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리라화의 가치가 폭락하는 등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터키에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최악의 상황을 염려한다.
“터키는 적을 필요로 합니다.” 십년 이상 사역을 하고 있는 터키 복음주의자가 말했다. 그는 이명을 요구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 빌미를 찾고 있습니다. 기독교 혐오(Christophobia) 민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관해 외국 언론에 계

속 부정적으로 떠돌고 있는 사람들은 때문에 신물이 납니다. 그들은 항상 터키를 나쁘게 이야기 합니다.” 한 터키 기독교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말했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도 이명을 요구했다. “그들은 현실의 반쪽만 이야기합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트럼프와 에르도안이 마찰을 빚으면서 급진 이슬람주의 단체들이 교회와 기독교 웹사이트들-을 향해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퍼붓고 있다.
지방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라고 밝히면서 이명을 요구한 터키 크리스천은 옹호 활동의 “미들 옵션(middle option)”을 제안한다.
“개별 사건들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압력이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외부의 영향력이 국내의 개혁과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매우 적습니다.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참여연구소(Institute for Global Engagement, IGE)의 크리스 사이플 전 대표는 지역 안보, 인권, 그리고 종교의 자유라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합의를 공식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폭력에 대해 소리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외교는 위기를 극복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사이플은 IGE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장기전에 걸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들려줬다.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사무국의 “요주의 국가”에 오랫동안 올라 있던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펜스가 터키를 공격했던 바로 그 국제회의에서 자국의 법적, 구조적 개혁을 단행해 종교의 자유를 증진시켰다고 밝혔다.
터키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트럼프는 에르도안에게 갈등에서 벗어날 출구를 열어줘 그의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고 사이플은 말한다.
탄압 당사자에게 비난을 퍼부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이런 태도가 여전히 옹호활동 세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외부에서 목정을 높인다고 해당 국가 내부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을 얻지 못합니다.” 사이플은 말했다. “그러나 관계의 폭이 넓은 조용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기회가 생깁니다.”

채플린 임상목회 (21)

정신질환 환자들을 위한 말씀사역(1)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채플린)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채플린들은 거의 대부분 목회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서, 가끔씩 채플린을 포함한 의료진에게 육설도 하고 거친 행동도 하는 진상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저희들끼리 농담처럼 주고 받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퇴원하면 언제 다시 보겠느냐?” 수년에서 수십년 동안 목회자로 섬기면서 온갖 신자들을 만나고 그중에는 목회자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거의 평생 대하며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내야했던 기억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 책임을 맡은 정신과 병동에는 단기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계선 상의 정신질환 환자들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도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정신질환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그룹 세션 가운데 영적 치유를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채플린에게 재량권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 성경공부가 어떻게 입원환자들의 전인적 치유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 교육 내용과 자료를 보고해야하고, 수업진행과 참여하는 환자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담당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클래스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성경책까지 구입해서 수업에 들어오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편이까지 배풀어주는 약간의 충격적인 상황에서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지난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 지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데 익숙한 삶에서, 채플린으로써 주로 환자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해주며 영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주면서 지친 스태프들을 격려해주는 정반대의 사역을 해야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말씀을 전해야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스태프들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하면서 준비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꾀와 교수를 찔러 쫓아내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4:12)이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다양한 증상과 배경을 가진 환자들을 개인 방문해서 가장 보편적인 정신질환들과 그 배경과 원인이 되는 감정들을 기록해서 분석해본 결과, 교회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령 심각한 우울증을 앓으면서 자살 기도를 수차례 시도한 환자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중증 우울증(Severe Depression)이란 병명을 갖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란 근본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은 소위 Anxiety Disorder라는 불안 장애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약물 등에 의지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데 이 좌우에 날선 대부분의 원인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정작 인간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참된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계속)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채플린)
tdspark@gmail.com

(1면에서 계속)
리더십의 핵심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 제럴드 브룩스는 리더가 되는 순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권리는 사라진다고 말했다. 책임이 없다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일단 책임을 맡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에 제약이 생기게 시작한다. 그리고 책임을 더 많이 맡으면 맡을수록 할 수 있는 일도 그만큼 줄어든다.
모든 리더에게 공통되는 것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이다. 사람마다 희생의 대상과 범위의 차이가 있지만 많은 리더들이 개인 생활의 상당부분을 희생한다. 6명의 귀족들은 칼레를 구하기 위해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쳤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리더십은 희생이다.
셋째, 리더로 머물고 싶다면 희생을 계속하라.



희생은 일회성 지출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불해나가야 하는 비용이다. 매년 연속으로 우승을 하는 스포츠 팀이 왜 드문지 생각해보는 적이 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한 번 우승한 리더는 다음 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우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음 해 더 큰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큰 희생을 치루기를 어려워한다.
정상에 머물려면 더 큰 희생을 감

수해야 한다. 리더십에서 성공하려면 계속해서 변화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계속해서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넷째, 리더의 위치가 높을수록 희생도 더 커진다.
혹시 경매에 참석해본 적이 있는가? 정말 짜릿하다.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방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경매가

말할 수 없는 아픔, 주님께 드리고 사역의 바다로!

(2면에서 계속)
개인적인 부담을 교인에게 믿고 맡기면 실패할 수 있다. 이들은 결국 목회자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 부교역자들은 교인을 데리고 나갈 수 있다. 목회자는 자리나 직책으로 사람에게 믿고 맡기지만, 그 사람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향력을 사용한다. 유다의 배신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 직원은 배신이다. 목회자는 적절히 이렇게 생각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당신에게 값을 지불하고 있어요. 텅으로 새로운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문제를 만지기 위해서 봉급을 누군가에게 지불할 필요는 없겠네요.”
40%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교인과 충돌이 있다고 한다.
목회자의 85%는 목회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불만 많은 노인, 집사, 예배 인도자, 예배 팀, 장로들, 부목사와 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루느라 생

기는 피로감이다.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두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사람들이 목회자와 같은 방향과 목표로 가지 않는 것이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믿지만, 사람들은 따르거나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목회자의 40%는 지난 3개월 동안 목회를 그만두는 생각을 해보았다고 답한다.
목회자는 주님의 은혜로, 마치 상처를 받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4. 외로움
누가 동역자인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문제를 다른 목회자에게 털어놓으면, 나를 비난할까? 다른 사람에게 말할까? 우선은 나를 다르게 대할까?
70%는 친한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진정한 동역자인가 아니면 어느 날 떠날 수 있는 현재 일시적인 동역자인 교인인가?
(9면으로 계속)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8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은혜받는 습관
데이비드 매릭스/생명의말씀사

아니 또 부르고 싶은 어머니
한국도서출판/루터영 외역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한홍/규장

살피심
김양재/두란노

페이버
하형목/청림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독일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아네티(뉴욕, 미국),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복음사 562-865-4949, 865-1919
도르가서점 714-636-7430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좋은 말, 좋게 하는 습관

‘남자 고생시킬 여자’라는 글을 보았는데 그 중 하나가 남자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 자기가 더 낙심하는 여자라고 한다. 남편이 오늘 힘들었다고 회사얘기를 하면, 남편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편이 더 낙심하게 되도록 더 부정적으로 말하는 여자란 말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회사에서 일 처리를 잘못해서 상관에게 꾸중 들었다고 말하면 회사에서 금방 짤리게 될 것처럼 땅 꺼지게 걱정을 하는 여자가 있단다. 물론 다음 날 아침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은 당연히 말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단 한 번의 작은 실수도 다시 수습하고 만회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가정과 사회 어디라도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의 영향력을 피할 수가 없다. 야고보서 3장에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어거한다 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산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이 그 사람의 미래이다. 입에서 나온 좋은 말은 사라지지 않고, 그 나아가는 길도 밝게 밝혀 준다. 그래서 잘 풀리고 그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을 보면 바로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말은 에너지이다. 좋은 말은 좋은 에너지이고 나쁜 말은 나쁜 에너지이다. 좋은 에너지가 흘러넘

치면 나도 좋고 남도 좋다. 사람은 말한 대로 산다. 말무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도 아니고, 가장 사악한 것도 하라고 했다. 긍정적인 말로 희망을 밝히는 존귀한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말로 파멸을 불러오는 사악한 것도 있다. 한 사람의 혀끝에도 선과 악이, 희망과 절망이 모두 달려있다. 긍정적인 말을 지속해서 듣고 사는 사람은 선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부정적인 말을 들어온 사람은 악과 절망의 포로가 되어 힘이 죽어간다. 삶의 연륜이 한 해, 한 해 쌓여갈수록 언어생활, 이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한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9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을 한다는 통계가 있다. 긍정적인 사람은 10%도 안 된다. 민수기에 기록된 정탐꾼들의 보고 기사를 읽어봐도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의 습관대로 보고했고 이스라엘 온 회중들도 모두 그 부정적인 보고에만 귀를 기울였다. 그걸 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 우리의 혀, 언어생활은 길들이기에 달렸다. 부정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면 부정의 언어 습관이 배고, 긍정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면 긍정의 언어 습관이 배게 되어 있다. ‘신리학의 25가지 법칙’이란 글을 보았는데 그 중에 언어습관과

관련된 법칙을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린다. 첫째로 반복의 법칙(The Law of Practice)라는 게 있다. 무엇이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습관이 생기게 되는데, 한 가지 새로운 습관이 개발되는 데는 약 21일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말 습관을 고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좋은 말 좋게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언어생활과 관련해 중요한 법칙으로 대체의 법칙(The Law of Substitution)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의 두뇌는 한 가지 종류의 생각만 받아들인다. 두 종류의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법칙이다. 예를 들면, 절망이 우리 머리에 자리 잡으면, 희망은 생각할 수 없고 미움으로 채워지면 사랑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번에 한 가지만 담을 수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라는 생각 대신에 “이런 일을 처음으로 해볼 기회가 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원이 없어서 못해” 대신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고 하자는 것이다. “아주 힘들 거야” 대신 “어려운 일이나가 도전해 볼만한 하잖아?”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대신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NeuroLinguistic Programming이라는 개념이 있다. 즉 사람은 자

기가 원하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실제 그런 상태에 도달한다는 원칙이다. 행복하고 싶으면, 지금 행복한 것처럼 말을 하고 행복한 것처럼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부정적인 상황인 지 심리학의 법칙을 영적인 세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소위 영적인 대체의 법칙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불평이나 불만이 자리 잡게 된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불평은 동시에 함께 자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 적극적인 감사가 멈춘다면 어느새 원망과 불평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다. 그는 의기소침해지고, 내성적으로 성격이 바뀌었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칭찬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 대통령이 되었다. 그 칭찬 한마디는 바로 “너는 할 수 있어”였다. 긍정적인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의기소침해진 소아마비 환자가 세계적인 경제공화국인 미국을 살려내는 대통령이 되게 한 것이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프랑스 파리의 미라보다리 위에서 구걸을 하는 장님이 있었다. 어느 날 지나던 사람이 구걸한 금액이 하루에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그 장님

은 힘이 10프랑밖에 안 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행인은 목에 걸린 팻말에 글씨를 지우고 다른 글을 적어 주었다. 얼마 후 후에 그 행인이 다시 와서 인사하자 장님은 그 손을 붙잡고 물었다. “선생님께서 도대체 제 팻말에 무엇이라고 적어주셨기에 그 후 5배가 넘는 50프랑의 수입이 오릅니까. 뭐라 적었습니까?”고 물었다. 그 팻말에는 “봄이 오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써놓았지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라는 무미건조한 말보다 “봄이 오면만”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호소력을 주었던 것이다. 생명의 언어는 위대한 성공을 만들어 낸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을 수도 있고, 천 냥 빚을 질 수도 있다. 말 한 마디로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 생명의 말, 사람의 기를 살리고 정서를 살리는 말, 더 나아가 생산적인 언어습관을 기르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자! 우리들의 말에 언제나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귀에 들리시는 대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좋은 말, 좋게 하는 습관 만들어가며 생활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껏 축복해주실 것이다. revpetergang@hotmail.com

푸/른/초/장

양민석 목사
(뉴욕그레이트교회)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의 명저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Challenge and Response)의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도전해 오는 위험에 대하여 어떻게 응전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나뉜다는 이론입니다. 즉,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자기 공동체 안에 존재하느냐가 관건이란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수학문제가 있다할지라도 실력이 있는 학생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과제들이 놓여 우리 삶의 지반을 심각하게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다면 좋으련만, 힘이 없어 주저앉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힘이 부족하다할 지라도 나 보다 힘이 세거나,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은, 이스라엘이 강대국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희망 없는 미래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출처는 다름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으시며

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 앙망의 신앙이 있는 자가 되어야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기도의 영성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1)먼저는 죄를 토설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 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 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

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사59:1-2).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파이프와 같은 것입니다. 불순물이 꽂 차 있으면, 흘러야 할 생수가 흐를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파이프를 연결해 놓아도, 죄로 찢어진 불순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흐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민감하신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토설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 부터 능력을 얻는 비결이란 것입니다.

위에서 오는 힘 (이사야 40장 28-31절)

려는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기도의 영성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2)또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고 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며, 집중력을 쏟아 올리는 기도입니다. 마치 주파수가 제대로 맞추어져야 화면이 나타나고, 통화가 연결되듯이 영적인 주파수가 맞추어져야 응답의 화면이 비쳐지게 되는 것이

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영적 주파수를 맞추어 드리는 기도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며 집중을 쏟아 부어 간절한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3)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약1:6-7)고 하였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얻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은 말씀과 더불어 강해지며, 성령의 선물로 더욱 온전해짐으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배의 영성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우러러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에 높이며 찬양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1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찬양) 오후 1:45 E/W 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목, 수, 금, 토, 일: 오후 8:00 (주일) 오전 11:00, (월)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x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목, 금: 오후 8:00 영, 수, 목, 금: 오후 10:45 토, 일: 새벽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www.jehelc.com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전 6:0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아침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영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문 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영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문)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아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EM)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c.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수 요 예 배: 오후 7:45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문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어린이 시청 프라임타임 TV의 성적(Sexual) 언급 및 자극적 내용 증가

TV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등급 매기기 위해 만들어진 PTC(Parents Television Council)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주류 채널들이, 어린이들이 주로 가족들과 함께 시청하는 황금시간대(Golden Hours)에 방송되는 여러 가족 코미디의 80% 이상이 노골적으로 sexual content, 즉 성인용 성적인 대화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A.P. Bio에 나오는 하버드를 졸업한 고등학교 "영재 생물학과" Jack Griffin 선생의 역할을 맡은 배우

PTC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치는 드라마로는 NBC의 "A.P. Bio - 영재 생물학수업"라는 드라마를 뽑았는데, 이 쇼의 거의 모든 에피소드마다 학교 선생님들이 교실 앞에서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 서로 농담처럼 이야기하거나 아이들 앞에서까지 부적절한 성적인 대화를 코메디 같지만 결코 웃기지 않은, 성인드라마에서나 들을까 말까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알립니다.

제가 확인 차 직접 유튜브(Youtube)에 가서 AP Bio 라는 것을 찾아서 몇편의 에피소드를 본 중 한 에피소드 제목이 "Sweet Wet, Sugar Mess"인데, 그 에피소드에서 선생님의 요청에 한 남학생이 자신이 쓴 글의 내용입니다.

"Dear Mile, you don't know me but you will. We will marry under the black sun of Satan's breath"라며 사탄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영혼을 내어주는 것을 써내려간 것에 선생님이 매우 잘 설명한 글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또 한 여학생은, "Hey boy, you are like butter dripping off of chocolate, I gonna lick you up and down. Drip, slurp, yum, Give me that sweet wet, sugar mess"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X등급을 받을 만큼 성적인 묘사를 하고 있으며, 생물학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나눌 이야기는 절대 아닌 것이지요.

NBC에서는 68%의 "가족 코미디"가 TV-14로 평가되었고 85%는 "D-성적 대화내용" 설명자를 포함했으며 ABC 방송에서

는 80%의 "가족 코미디"가 어린이용 sexual content가 담긴 대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ABC는 1986년부터 월트 디즈니 컴퍼니에 의해 합쳐지면서 ABC 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되어 디즈니 회사가 되었습니다.

CBS의 경우는, 60%의 "어린이용 가족 코미디"가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TV-PG를 받은 내용 중에서도 83%는 성적인 대화를 가리키는 "D" 서술을 포함했습니다.

FOX에서는 75%의 "가족 코미디"가 TV-14(14세 이상 시청가능등급)로 평가되었고 "D" 서술이 있었습니다.

PTC에 의해 선정된 가장 나쁜 어린이 가족 코미디들은 첫째가 NBC의 A.P. Bio(생물학수업), 그 다음은 The Mick(Fox), American Housewife(ABC), Life in Pieces(CBS), Family Guy(fox)가 순서대로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한 예로, 2017년 11월의 "The Mick" 에피소드에서 술집(Bar)에서 비디오 포커 게임을 하는 성인인 8살짜리가 같이 비디오 게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게임에서 브레이저를 착용한 여성이 등장하고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여성은 옷을 하나씩 벗습니다. 그때 8학년 세 학생이 "나는 그녀의 부비(여성가슴을 상징)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자, 그 어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게임을 하기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damage(위험)는 생겨버렸으니까. 이왕에 시작한 거, 이 여자의 다른 찢꼭지도 얻을 수 있는 지 알아보자"라고 성인이 아이에게 말하는데 모든 것을 웃기

는 식으로 드라마가 다루고 있지만, 이 코미디가 어린이 가족 코미디라는 사실이 기가 막힌 것이지요.

PTC의 회장 Tim Winter는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TV 등급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광고주가 MA(Mature Audience) 등급 콘텐츠를 후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숙한 잠재 고객(TV-MA)으로만 평가하면 대부분의 광고주가 스폰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광고를 받고자 거짓등급을 매기는 것이지요. 네트워크(방송)는 노골적인 것도 돈이 되면 받으니까, 그리고 광고주에게는 스폰스 할 수 있는, 따라서 아이들이 볼 것을 부정확하게 평



가하는 거죠. 또한 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프로그램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다 보도록 허용하는 실수를 하죠."

PTC 연구를 위해 분석한 황금시간대 가족 코미디는 다음과 같습니다:

△ABC - Last Man Standing, Dr. Ken, The Middle, American Housewife, Fresh Off the Boat, The Real O'Neals, The Gold-

bergs, Speechless, Modern Family, Black-ish, Splitting Up Together, Roseanne
△CBS - Man With a Plan, Kevin Can Wait, Life in Pieces, Mom, Young Sheldon
△Fox - The Simpsons, Bob's Burgers, Family Guy, Son of Zorn, The Mick, L.A. to Vegas
△NBC - This Is Us, Champions, A.P. Bio
△CW - Jane the Virgin

기독교 단체와 가정들이 뽑은 Pureflix! 첫달은 무료!

저희 Tvnext가 여러 네트워크를 조사한 결과 안심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가족용 Pureflix(Faith, Family, Fun)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Pureflix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최신 기독교 영화, 가족영화 어린이 만화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Pureflix는 Netflix 같은 것이지만 Netflix처럼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가진 최신 기독교 영화, 가족 영화 어린이 만화까지 다양하게 영화 드라마 등을 보여주고 있어서 유익하고 정서적이며 무엇보다 성경적 가치관과 문화를 바탕으로 교육적이기도 합니다.

Pureflix는 한 달에 7.99달러만 내면 아이들의 영혼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안전하게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유익한 엔터테인먼트를 온 가족이 언제나 즐길 수 있으며 첫 달을 무료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Pureflix를 신청하시고 다른 기독교 가정에게도 알리실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미국 기독교 교단에서도 동성애자들과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동성에 교회나 동성애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토랜스에서 권명옥 권사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보수주의적(Conservative)인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권위와 절대성을 믿는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1남1녀가 하는 것이지,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liberalism)들은 기독교의 초자연성을 부인하고 인간 이상의 사교를 성경의 권위보다 앞세우기에 성경해석도 인본주의로 해석하여 성 소수자들의 인권(Human right)을 강조하면서 성경이 금하는 동성애도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 중에 가장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와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가리켜서 가증한 것(abomination)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혐오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우상숭배의 산물인 복술, 요술, 무당 신점사, 박수, 초혼자 등을 가리켜 가증한 행위라

회개하고 돌아서면 구원받을 수 있으나 동성애 행위를 계속하면 구원 없어

고 하였고 동성애 행위를 가리켜서도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레18:22). 그러므로 성경은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우상숭배와 같이 가장 미워하고 악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면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답한다면 "No(아니오)"입니다. 정은표 목사가 발간하는 개혁신앙지(2017년 5월)를 보면 동성애자들에게 구원이 있는가? 라는 소논문에서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고후6:15) 여기서 벨리알은 사탄을 의미한다. 구약 신명기 13: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잡류가 일어나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자 하거든'이라고 하였는데 이 잡류는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며 번역하면 '벨리알의 자손들(sons of belial)'이고 고린도후서 6:15절과 비교해 보면 사탄의 자손들 즉 사탄에 매인 자들이 된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나 동성애에 젖어있는 자들의 정체성은 벨리알의 자손(사탄의 자손)이다."

만일 교회가 이런 동성애자들을 인정하고 정식 교인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직분을 준다면 그 가증한 일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나실 것입니다(겔8:5-6). 그러므로 성경은 동성애 크리스천이나 교회가 불가능하다고 증거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사탄)이 어찌 조화되며"(고후6:15절)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나 교단은 "타락한 음녀교회"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질문은 "Yes",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동성애자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를 영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기에 지난날의 동성애를 범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동성애를 고의적으로 계속하면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다고 성경은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개들과 짐승들과 음행하는 자들과...다 성 밖에 있으리라"(계22:15). "간음하는 자나 탐욕하는 자(동성애에 있어 여성역할 하는 자) 남색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6:9-10).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목회상담학 DMin in Counsel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3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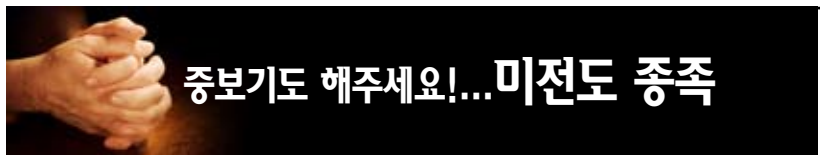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동의 유대인(Jews)



1948년까지 유대인들은 이라크와 이란에서 가장 큰 비이슬람계 소수 집단을 형성했다. 유대인 공동체는 이슬람이 국교로 선포될 때까지 수 세기 동안 잘 지낼 수 있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소외되고 많은 차별과 박해를 당해왔다. 때로 그들은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되기도 했다. 1948년 이스라엘 국가의 형성과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상당한 수의 유대인들이 이라크와 이란을 떠났다. 남아있던 소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유대적인 분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다. 유대인들의 생활양식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은 중동국가들이라는 반지 가운데 반짝이는 보석과 같다. 거의 2천년 동안 소수민족으로 지내왔고,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 가운데 82%가 유대인이다. 이스라엘로 찾아든 이주민의 물결은 1880년대에 "시오니즘"이라는 민족적, 문화적 부흥과 함께 시작됐다. 이민자들의 작은 물결기는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홍수를 이루게 됐다. 국가 형성 이후로, 이스라엘은 2백5십만 이상의 유대인들을 받아들였다. 아마 앞으로 10년 후에는 세계의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미국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삶의 모습

언어는 이 지역의 유대인들 가운데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다. 히브리어와 아랍어가 기도와 종교적

으로 또는 법적인 문제를 다룰 때 흔히 사용되는 언어지만, 유대인들은 지역 언어와 방언에도 꽤 능숙하다. 파시어(이란어)와 아랍어는 이스라엘 바깥의 유대인들 대부분이 일상 사용하는 언어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대인들은 이디쉬어(히브리어 요소를 가진 독일어), 러시아어, 유다어, 라디노어나 그들이 태어난 나라에서 익혔거나 이민 1세인 부모로부터 배운 그 밖의 다른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90%는 거의 도시에서 산다.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내고 시골지역에 정착을 시도하는 것은 어려웠다. 사실, 그러한 시도들은 종종 유대인과 팔레스타인들 사이에 민족갈등을 일으키는 광경을 보여 왔다. 시골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대부분은 키부츠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 또는 정착지의 구성원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든 이주민들이 하나의 유대인 민족으로 융합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과거의 각각 다른 이주민 집단들은 이

제 오늘날의 여러 종족들이 되어 가고 있다. 종족구분에 따라 계급 사회가 형성됐다. 어떤 사람의 종족 배경은 그 사람의 직업과 생활 수준을 형성하게 된다. 즉, 아프리카-아시아인들의 후손인 "동방 유대인들"은 사회의 낮은 계층에 집중돼 있다.

이스라엘 외부의 많은 유대인 공동체는 달리, 대가족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핵가족이 가장 중요한 단위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교육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갖기 때문에, 학교교육은 10학년까지 무상이고 의무적이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군 의무병역을 성인이 되기 위한 중요한 통과례로 본다.

학교에서 유대학문이 쇠퇴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위기가 생긴 걸과도 같았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나 돼지고기 판매 금지의 문제와 같이 사회법으로도 입법된 많은 종교법은 더 이상 강제적이지 않다. 유대인 종교의 모든 휴일은 지키고 있지

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것보다는 사회적인 가치를 가진다. 한편, 히브리어 유대인 학문, 예술, 특히 무용과 문학, 음악, 연극 등에 있어서 문화적 부흥이 있기도 했다.

신앙

랍비 유대교는 이 지역 유대인들의 주도적인 종교이며, 공식적으로 인정된 교파는 정통파다. 랍비 유대교는 사원을 유대교 교회로, 성직을 랍비로, 또 희생제를 기도의식으로 바꾸었다. 토라(모세의 히브리어 이름) 연구에 중점을 두며, 약속된 땅에서의 민족적 회복을 더욱더 필요로 하고 있고, 지금 세상의 역할은 다음에 올 세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하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 약 2/3에서 3/4 정도는 율법을 그다지 잘 준수하는 편이 아니다.

자신이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간단히 나누면 전통적인 신앙과 의식을 고수하는 정통파(정통주의자)와 전통신앙을 지

키기는 하지만 엄격하게 의식을 준수하지는 않는 현대주의자로 나뉜다. 성소는 국가와 종교위원회에 의해서 유지되고 랍비는 국가의 공무원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어받고 있음을 아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성취하셨던 유일한 분,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부한 역사를 갖고 있다.

유대인들은 차별과 박해를 당해왔다. 그들은 감정의 치유와 용서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을 반유대주의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전 아브라함 시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에의 성취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 자신들의 "유대인다움"이라는 것을 민족 정체성으로 이해하고 종교적인 관련을 갖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영적 갈급함이 생겨나도록 기도하자.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십자가를 망치로...' 폐북에 미얀마 교회 파괴 영상

중국 윈난성에 인접한 미얀마 북동부의 산 주(Shan state)에서 반정부 세력의 병사들이 교회 십자가를 파괴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모닝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가장 강력한 반정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와족의 연합외국간군(UWSA·United Wa State Army)은 지난 20일 이후 산 주에서만 최소 12곳 이상의 교회를 파괴하거나 폐쇄시켰다.

이들을 밝히지 않은 한 현지 기독교 지도자는 "조상을 숭배하는 와족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했다"면서 "이들의 목표는 산주에서 기독교의 확산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군 병사들이 교회 십자가를 파괴하는 영상 등을 촬영해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올라온 페이스북 영상에는 27일 현재 총 1200여건, 공유 3800여회를 기록하고 있다. 반군세력은 팽산드 타운에 있는 기독교 학교도 함께 폐쇄시켰다. 현지 주민들은 "교회는 물론 기독교 학교까지 철거됐고 일부 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잡혀갔다"면서 "반군은 기독교인들을 풀어주기 전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석방을 시켰다"고 전했다.

UWSA는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교회나 학교를 지어 지역의 불안정성을 조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기독교 박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스우드 처치 인 캘러'의 설립자인 밥 로버츠는 지난 7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만 동안 무려 60개의 교회가 군사세력에 의해 파괴됐으며, 사라진 교회 자리 중 20곳에 불상이 세워졌다고 말했다. 로버츠는 이를 놓고 "이는 명백한 인종 청소"라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월 미얀마를 중국, 이란, 북한, 에리트레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함께 종교자유 특별 우려 10개국 중 한 곳으로 지정했다.

메리어트, 호텔객실 성경 비치로 시골

미국 호텔 체인 메리어트는 올해 말까지 성경 30만 권을 전 세계 객실에 비치하기로 했다.



AP 통신은 최근 메리어트의 이 결정을 보도하며 여행객의 찬반논란을 지적했다. 일부는 자신의 객실에서 성경을 발견하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반대로 일부는 주식이 공개되어있는 회사는 종교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메리어트 측은 의견서를 통해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투숙객들은 객실에 비치된 성경을 선호한다. 많은 투숙객들이 성경을 비치하는 전통을 환영하며 반대는 아주 드물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분야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는 '종교로부터의 자유'(FFRF) 같은 단체들은 성경이 객실에 비치되지 않도록 캠페인을 벌여왔다.

문제는 대규모 호텔 체인 중에서 메리어트가 유일하게 객실에 종교적인 물건을 비치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메리어트의 모든 브랜드에 다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 메리어트 측은 호텔 브랜드와 위치에 따라 결정사항이 수백개에 이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힐튼이나 다른 호텔 체인들은 개개 호텔이 정하게 하거나, 이 사

안에 대해 따로 규정이 없다.

미국 호텔 데이터 전문회사인 STR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 호텔에서 객실에 종교적인 물건을 제공하는 비율이 2006년 95%에서 2016년 79%로 줄었다. 특히 럭셔리 호텔에서는 51%가 제공했을 뿐이다. 도시나 리조트 호텔은 도시 외곽이나 주와 주 사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주변 호텔의 경우보다 객실 성경 비치 비율이 낮다.

메리어트는 기드온 인터내셔널로부터 성경을 무료로 받는다. 기드온은 감옥, 병원, 호텔, 기타 공공장소에 성경을 기부하는 단체다. 메리어트는 2015년 말 스타우드를 인수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이 됐다.

"성경 읽으며 자살 유혹 떨쳤어요"

49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표류하던 10대 청년이 극적으로 생환했다. 극한의 공포에 떨며 몇 번이나 자살의 유혹에 시달렸지만 청년은 그 때마다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며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26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해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마나도 출신인 알디 노벨 아딜랑(Aldi Novel Adilang·18)은 지난 7월 14일 술라웨시 섬 앞 바다에서 77마일(124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롬퐁(rompong)이라는 재래식 어구를 지키는 일을 하다가 바다로 떠내려가는 사고를 당했다.

롬퐁은 판나무 잎사귀 등을 물속에 넣어 어초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고 밤엔 불을 밝혀 참치 등을 유인하는 어구다. 1주일에 한 번 롬퐁으로 잡은 고기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아딜랑에게는 1주일 치 식량과 물, 그리고 불을 밝히는 연료 등이 전부였다.

이런 아침 불어 닦던 강풍이 작은 오투막이 있는 뗏목을 묶었던 줄을 끊고 아딜랑을 연안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바다로 밀어냈다. 1주일 치 식량과 물이 있었지만 시련은 1주일 만에 끝나지 않았다. 식량이 바닥나자 아딜랑은 롬퐁으로 고기를 낚아 연명했다. 식수는 비에 젖은 옷을 쥐어 짜 물을 축이는 식으로 충당했다.

10척 이상의 큰 배들이 길을 지나갔지만 누구도 아딜랑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49일이나 해류에 밀린 끝에 실종지점에서 무려 1500마일(2414km 정도)이나 떨어진 곳까지 떠내려갔다.

아딜랑은 수차례 자살 유혹에 시달렸다. 실낱같은 희망조차 볼 수 없는 극한의 공포가 그를 감쌌다. 뗏목에서 바다로 뛰어 들기만 하면 끔찍한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유혹이 들었다. 하지만 아딜랑은 그 때마다 부모님의 조언을 떠올렸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렴. 그럼 고통이 줄어들 거야.' 아딜랑은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말씀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었다.

아딜랑의 부모도 실종 소식을 접한 뒤 기도에 전념했다. 모친 넷 카히경씨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뿐이었다"고 말했다.

아딜랑은 지난날 31일 괄 인근 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화물선 MV 아르페지오 호에 의해 구조됐다. MV 아르페지오 호는 뗏목을 지나치려다가 아딜랑이 휴대용 무전기를 통해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구조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딜랑은 배의 목격자인 일부를 거쳐 지난 9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아딜랑의 가족들은 아딜랑이 19살이 되는 오는 30일 큰 파티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처치투운동 들어본 적 있다" 美 목회자 16%본

미투(#MeToo)운동과 관련된 대중적인 논의가 미국교회 목회자에게 관심을 끌었지만 그 관심이 성도들이 겪는 폭력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못했다. 이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리서치가 따르면 목회자의 85%가 미투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교회 내 성희롱과 학대에 초점을 맞춘 처치투(#ChurchToo) 운동에 대해서는 16%만이 들어봤다고 대답했다. 라이프웨이리서치는 '가정 및 성폭력에 대한 목회자들의 태도와 행동'을 주제로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했다.

스톡 매킨돌 라이프웨이리서치 대표는 "미투운동이 확산된 이후 목회자들이 성희롱이나 가정폭력에 대해 과거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과거 진행했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두드러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성도들에게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해 얼마나 자주 이야기 하는가'라는 질문에 '1년 이하 1회 이상'이라고 답한 목회자는 2014년 56%에 그쳤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77%로 증가했다.

반면 "성도들에게 폭력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목회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몰라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목회자가 "우리 교회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46%) "다른 이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서"(29%)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처법을 잘 몰라 언급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6%나 됐다.

조사에서 목회자 10명 중 8명(82%)은 "피해자를 상담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성적 학대나 폭력 피해 상담을 위해 충분한 훈련을 받은 목회자는 10명 중 5명에 불과했다.

매킨돌 대표는 "상당수 목회자가 가정 및 성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키플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키플 상담이 오히려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며 "피해자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게 최우선인 만큼 목회자들이 사전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전화를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은 ±3.2%이다.

"북핵 포기 땀 북·미 수교 지지" 77%

미국 국민의 77%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북·미 수교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77%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지난 9월 30일 2018년 미국 국민의 외교정책 여론조사 중 한반도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북핵을 미국의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의견은 59%로 조사됐다. 지난해 75%에서 16% 포인트 줄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선물로는 북·미 수교(77%)에 이어 대북 경제·인도적 지원(54%), 미군 일부 철수(54%)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율은 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37%는 북한 비핵화 발발 시 북핵 시설 공습에 찬성했고, 25%는 김정은 체제 전복을 위한 미군 투입을 지지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 '미군이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은 64%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감도는 67%,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에 대한 비호감도는 91%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 지원 등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7월 미국 성인남녀 20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됐다.

인도 수국민 생체정보 등록, 대법원 "합법" 판결

인도 대법원은 26일 전 국민 13억명에게 12자리의 주민번호와 함께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정부의 정책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이로써 유례없는 자동 생체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인 인도판 주민등록제 '아다르(Aadhaar)'가 위헌 논란을 극복하고 존속할 수 있게 됐다. 아다르는 힌두어로 '기초'를 의미한다. 인도 정부는 2010년부터 모든 국민의 지문, 홍채 스캔 및 사진을 12자리 개별 주민번호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시작해 현재 90%인 11억3000만명에 관한 데이터를 완료했다.

그동안 인도에서 부유층은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쉽게 증명할 수 있었지만 빈곤층은 제대로 된 신분 증명 수단을 갖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 때문에 복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부패와 사기를 줄이기 위해 아다르를 도입했다.

하지만 올 초 아다르에 등록된 수백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보안 문제와 함께 정부의 사생활 감시라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아다르의 위헌 소송이 제기됐지만 인도 대법원 재판부는 4대 1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은행계좌 개설, 휴대전화 연결 및 학교 입학 등의 업무에서는 아다르를 강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유엔 이어 美도, "미얀마가 로힝야족 계획적으로 학살"

유엔이 이어 미국도 미얀마 정부군이 미얀마 내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에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달 발표된 유엔보고서와는 달리 이 사건을 집단 학살로 묘사하지는 않았다.



미 국무부는 2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미얀마 라카인주 북부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는 극단적이고 규모가 크다. 로힝야족에게 겁을 쥐 몰아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아직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은 이 보고서는 미얀마군 공격을 피해 방글라데시 난민캠프로 망명한 로힝야 난민 1024명을 면접 조사해 작성됐다.

보고서에는 "미얀마군 작전은 주도면밀하게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며 "사람들을 집에 가둔 채 불을 지르거나 마을을 완전히 봉쇄한 채 총격을 가했고 수백 명의 난민을 태운 보트를 침몰시키는 등 대규모 희생을 유발하는 전략을 썼다"고 분석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미얀마군이 4명의 소녀를 납치한 뒤 손발을 묶고 사흘간 집단 성폭행했다. 그들은 엄청난 출혈로 인해 받은 죽은 상태였다"는 난민 증언도 소개했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이 사건을 집단학살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익명의 국무부 고위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조사의 목적은 집단학살 여부를 규정하기보다는 잔혹 행위 책임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미얀마군의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할지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달 27일 공개된 유엔 보고서는 이 사건이 집단학살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유엔 보고서는 미얀마군이 사태 발생 초기 2개월간 학살한 로힝야족 수만 1만여명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유엔 조사단은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등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해 8월 로힝야족 반군토벌 과정에서 로힝야족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한 혐의를 받는다. 70만 명이 넘는 난민이 학살을 피해 이웃한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60. 오창곤(1873-1935)

오창곤은 1873년 8월 8일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1905년 11월에 32세의 오창곤은 남가주 리버사이드 또는 쿠가봉가에 거주하는 공립협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1908년 7월 중가주 샌포드에 재류하던 공립회원 23인이 공립협회 지방회 신설을 청원하였을 때 그도 있었다. 1910년경에 그는 디뉴바로 이주한다.

1917년 3월의 디뉴바 한인교회 예배당 건축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그가 15달러를 헌금했고, 이듬해 12월에 맨티카 한인교회 예배당 건축의연으로 2달러를 헌금했다. 1924년 6월에 그의 부인이 서반아 감기에 감염되고 이듬해 6월에 그가 일하러 가다가 자동차 충돌로 머리와 어깨에 중상을 입었고, 그의 부인은 늑골이 상하여 입원 치료를 하였다. 이때만 해도 그는 디뉴바에 거주했다.

리들리 한인감리교회

중가주 리들리는 1888년에 세워진 디뉴바 인근 도시다. 이곳에 한인교회가 세워지기는 1919년이었고, 1922년에 미국 남감리교가 내지선교로 승인했다. 1928년 10월에 데비스 목사의 사화로 모인 미국 남감리교 중가주 리들리 계삭회에서 오창곤은 리들리 교회 권사와 탁사로 선임되었다.

이날 선임된 다른 직원으로는 권사에 마주흥, 탁사에 윤병구, 마주흥, 이치완, 권영복, 여사, 김덕세, 여사, 마수산, 여사가 있었다. 이날 여섯 명의 교인이 세례를 받았고, 감회사 데비스 목사 주례로 성찬식이 있었다. 과거 7주간에 수입된 헌금 231달러 85센트 중에서 지출한 금액 99달러 85센트를 제하면 잔고는 132달러였다.

그해 성탄절은 3부로 나누어 매우 성대한 순서로 진행됐다. 1부는 오창곤의 사회로 일곱 조목의 재미있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2부에는 권중흥이 11가지 취미 있는 순서를 진행하였고, 3부는 진영규의 사회로 희락과 여흥 등의 유희한 순서가 있었다. 순서 중에 가장 특색 있는 프로그램은 여학생의 피아노 독주와 아동 참가대의 성탄 창가였다.

1928년의 예배당은 전성룡 주백, 김형제 상회 가족에 이어 세 번째 예배당이었다. 담임목사 한석원에 따르면 교회는 동포들이 거주하는 중심에 있었다. 보기에

깨끗하고 아름답고 한적한 살림집이었는데 방이 좁아 수리했다. 동포의 수는 60여 명인데 교우의 수는 이보다 적고 어린이들의 수가 거의 반이 되어 책임을 질만한 교우의 수가 많지 못했다. 그러나 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생각과 동포의 공동한 행복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예배당을 마련하였다. 총 건축비는 3천여 달러였다.

‘옛날 소크라테스의 거하던 집이 심히 험악하여 공간이 불편하였으나 참 이치를 찾는 사람이 찾기를 기뻐한다’ 함과 같이 이 예배실이 비록 크지는 못하나 그 형제와 자매들의 참 이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모였다.

1929년 1월 미국 남감리교 중가주 지방회는 리들리 계삭회의 천거로 권중흥과 마주흥과 함께 오창곤이 리들리 교회 전도사로 2년간 사역한다. 그날 오창곤은 황사용, 노순태, 이옥형, 김필권과 함께 ‘신령상 위원’에 선임되었고, 본 위원장은 임정규였다.

그해 6월 스타톤에서 있었던 미국 남감리교회 구역대회의 결의에 따라 리들리 한인교회 한석원 목사를 모시고 오창곤이 250마일의 중가주 순회전도에 나섰다. 딜라노, 메리코과, 테프트, 맥과랜드, 엘리마 등에 거주하는 여러 동포를 심방하였는데 많은 재미와 진정한 사랑을 주신 여러 동

포에게 감사의 말씀을 신한민보에 게재했다. 그들은 여러 동포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우리 모임 안에 계시기를 기도했다.

그해 6월 23일 주일에 중학교와 소학교 졸업생 축하회가 킹스 강변에서 있었다. 6명 졸업생 중 오창곤의 자녀가 디뉴바 중학교를 졸업한 오메리와 디뉴바 소학교를 졸업한 오엘나 등 두 명이었다. 그의 사회로 찬송가 100장을 부른 후 이치완이 기도하고 권중흥이 마태복음 18장 1-20절을 낭독한 후 찬송가 41장을 불렀고, 오창곤이 기도한 후 한석원 목사가 ‘새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찬송가 158장을 부른 후 마주흥 전도사가 예물을 수여했다.

예물은 서울 탑골 공원의 거북 모양으로 된 책 세는 것을 한 개씩 나누어 주고 그 거북에 대한 역사와 삼일절에 관계된 사실까지 설명하였다. 찬송가 1장을 부른 후 한석원 목사가 축도함으로 졸업예배를 마쳤다. 준비해 온 한국 음식을 ‘수품이 자욱하고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강변에서 먹고’ 오후 4시경에 각자 해산했다. 이날 축하식에 오창곤은 1달러를 기부했다.

1929년 10월에 리들리 한인교회당에서 다년간 리들리에 거주했던 마주흥 가족 송별회가 있었다. 찬송가, 성경봉독, 기도, 개회사, 노래, 송별의 말, 답사, 찬송가, 기도

독하고 이치완 전도사가 이사야서 9장 1-7절을 봉독한 후 오창곤 전도사가 기도했다. 권중흥이 ‘고요한 밤’을 독창한 후 한석원 목사가 ‘예수의 오심’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하고 기도했고, 찬송가 1장을 다같이 부른 후 한 목사가 축도했다.

이로써 1부 예배 마치고 2부가 이어졌다. 어린 학생들이 ‘고요한 밤’을 노래할 때 산타크로스가 들어와 각 사람에게 예물을 나누어 주었다. 9시가 되어서야 폐회했다.

1930년 1월 1일부터 5일까지 강사를 초청하여 신년기도회를 개최했다. 1일 밤에는 마주흥이 ‘믿음과 생활’을, 2일 밤에는 디뉴바의 이상음이 ‘민족과 독립정신’을, 3일 밤에는 오창곤이 ‘은혜와 감사’를, 4일 밤에는 이치완이 ‘금주와 금안’을, 마지막 날인 5일 아침에는 한석원이 새해의 표어인 ‘예수여, 오소서!’를 그리고 그 날 밤에는 권중흥이 ‘하나님의 교회’를 설교했다.

신한민보는 1930년 1월 16일자에 오창곤을 장로로 소개한다. 하루 전 한국하는 그의 사위 이유일 박사를 전송하려고 상항까지 왔다가 기차 제목을 ‘오창곤 장로’의 사위 전송차로 입항’이라고 썼다.

3월 3일에 리들리교회에서 데비스 목사의 사화로 제1계삭회가 있었다. 이날 구역목사 한석원이 중가주의 리들리와 테프

일학교교장에 권중흥, 생명록 조사위원에 이치완과 진영규, 평신도 인도자에 김형순, 부인선교위원회에 권영복이 선임되었다.

그해 5월 상항 예배당에서 데비스 목사의 주관 하에 미국 남감리교 지방회가 있었다. 리들리 한인교회에서는 한석원 목사, 마주흥 목사가 참석하였는데, 권중흥과 이치완과 함께 오창곤도 불참하여 3명의 전도사 모두가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본 지방회에서 권중흥과 이치완, 노순태, 김필권과 함께 오창곤도 품행을 통과하고 전도사 2년으로 승급이 되었다.

당시 리들리 구역에는 리들리, 딜라노 그리고 테프트 등 3지역에 교회가 있었다. 총 교인수는 75명이었고, 출석은 50명이었으며, 그해 유아세례를 받은 자는 한 명뿐이었다. 총 헌금액수는 966달러였다. 그달에 상항 예배당 신축에 오창곤은 5달러를 헌금했다.

디뉴바 한인장로교회

오창곤은 1930년 6월경에 리들리 한인감리교회에서 디뉴바 한인장로교회로 이명하여 장로로 섬겼다. 그는 이곳에서도 농업을 종사하였다. 그달에 두 번의 추도회가 있었다. 장인한 의사 추도회에서 오창곤은 기도순서를 맡은 반면 이승훈 선생의 추도회에서는 이치완과 강화중과 진영규와 권중흥과 함께 오창곤이 추도사를 읽었다. 이 두 추도회에서 애국가와 찬송가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제창했다.’

그해 추수감사절은 독신 동포들을 위로코자 하여 오창곤의 가정에서 오창곤과 함께 오창곤은 대언회를 배설한 가운데 30여 형제가 모여 크게 즐거이 지냈다. 그해 성탄절은 150여 동포가 모여 대성회를 이루었다. 김덕세의 피아노 반주로 시작한 1부 예배는 65장 제창에 이어 오창곤이 기도하였다.

1931년 성탄절은 특이했다. 디뉴바 한인장로교회와 최근에 감리교회에서 장로교회로 된 리들리 한인장로교회가 연합으로 디뉴바 한인장로교회 예배당에서 160여 명의 동포가 모인 가운데 예배와 축하회 등 2부로 나누어 성탄절 행사가 있었다. 오창곤은 2부에서 감사기도 순서를 담당했다. 1934년 11월 추수감사절은 중가주 한인장로교 면려회 주최로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이날 오창곤은 1부 예배에서 감사기도 순서를 맡았다.

오창곤이 체증으로 수주간 자택에서 치료하다가 의사의 권고로 중가주 프레스노의 버나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신한민보에 게재한 유족의 감사장에서 그의 소견을 알게 된다. 그는 1935년 8월 21일에 향년 62세로 소천했다.

유족은 조진과 화환과 부의금뿐 아니라 장례식에 참석한 수백 명의 여러분께 감사의 드렸다. 그 뿐만 아니라 50여 자동차가 리들리 공영묘지로 이동하여 하관예배에 참석하므로 선전 영가에 영광을 돌리고 모친께 안을 드림도 깊이 감사하였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하위드, 샘, 일타이, 폴 등 네 아들과 로시, 매리, 루, 에스더, 세라 등 다섯 딸이 있고, 세 사위가 있었다.

damien.sohn@gmail.com

1929년 1월부터 리들리교회 전도사로 2년간 사역 1930년 6월 디뉴바한인장로교회로 이명, 장로로 섬겨



신한민보, 1929년 7월 25일



오창곤의 묘비

그리고 다과회로 마쳤는데 오창곤은 교회 대표로서 ‘송별의 말’ 순서를 담당했다. ‘송별의 말’에는 부인대표 권영복도 있었다. 답사에서 마 부인은 ‘사업상 관계로 이곳을 떠나는데 이 같은 귀한 모임은 미주 20성상에 처음입니다... 우리의 집에는 큰 영광으로 압니다’라고 했다.

1929년 성탄절은 24일 오후 7시 반에 성대하게 거행했다. 이날 오창곤은 기도를 맡았다. 권중흥 전도사의 사회로 권은식과 권정식이 ‘거룩한 밤’으로 하모니카 병창이 있는 후 찬송가 63장을 다같이 불렀고, 마주흥 전도사가 누가복음 2장 8-20절을 봉

트와 딜라노 교회의 정형을 보고한 후 이치완과 권중흥과 함께 오창곤이 전도사 보고를 하였고, 마주흥 목사의 보고도 있었다. 오창곤은 진영규와 함께 교육 위원에 선임되었다. 이날 권사에 김형순과 장유문, 탁사에 장유문, 김형순, 권영복, 강순태, 재정 유사에 권중흥, 유사에 장유문, 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4>감사한인교회</h4>  <p>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회: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양회: 오전 9:30, 11:3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ca</p>	<h4>나성순복음교회</h4>  <p>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회: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 오후 7:30 수-금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fgusa@yahoo.com / www.lafgusa.com Tel: (323)913-4499 /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4>나성영락교회</h4>  <p>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월-토)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h4>나성제일교회</h4>  <p>담임목사 : 김곤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 Fax: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4>나침반교회</h4>  <p>담임목사 :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심방: 오전 5: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토요한국교: 오전 9:30</p> <p>Tel: (562)691-0691 / Fax: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h4>남가주든든교회</h4>  <p>담임목사 : 김현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949)854-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ca</p>	<h4>남가주사랑의교회</h4>  <p>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양회: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2부: 오전 9:20 3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dkcc.org</p>	<h4>대동장로교회</h4>  <p>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영양회: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금 요 예배: 저녁 7:30</p> <p>Tel: (714)719-2244 / Fax: (714)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cc.org</p>	<h4>디아스포라교회</h4>  <p>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향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하 팩스 전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h4>미주양곡교회</h4>  <p>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4>미주평안교회</h4>  <p>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월-토) 4부: 오후 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p> <p>www.mpcia.org Tel: (213)381-2202 / Fax: (213)381-2535 170 Bimlin Pl., Los Angeles, CA 90004</p>	<h4>빛과 소금의 교회</h4>  <p>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p> <p>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h4>베델한인교회</h4>  <p>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영양회: 오후 2:00 성경말씀회: 오전 9:15, 11:30 영양회: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h4>LA 복음연합감리교회</h4>  <p>담임목사 : 김조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청소년부: 오전 11:00 영양회: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성경말씀(목요일): 오전 10:00 성경말씀: 오전 6:00</p> <p>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4>복음장로교회</h4>  <p>담임목사 : 김상력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회: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4>세계소망교회</h4>  <p>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8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4>요셉선교교회</h4>  <p>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p>	<h4>얼버인침례교회</h4>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p>	<h4>윌셔크리스천교회</h4>  <p>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7274 /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1 L.A., CA 90010</p>
<h4>은혜한인교회</h4>  <p>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온라인예배: 오전 9:15, 11:30</p> <p>www.gracemc.com Tel: (714)446-6200 /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4>주님세운교회</h4>  <p>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경말씀: 오전 7:20(금)</p> <p>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p>	<h4>주님의영광교회</h4>  <p>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gcj.org</p>	<h4>중은마음교회</h4>  <p>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www.sociasamsungchurch.com / e-mail: pastor@sociasamsungchurch.com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4>코너스톤 교회</h4>  <p>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nerstonev.com / e-mail: pastor@co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9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2</p>	<h4>토렌스노교회</h4>  <p>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5:30(월-토) 침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리더십 코멘터리 (74)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리더의 영역확장의 영적 솔루션

인간의 마음에는 네 개의 영역이 있다

하버드대학교의 저명한 심리학자는 인간의 마음에는 네 개의 방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방은 나만이 아는 비밀의 방이고, 두 번째 방은 나에게 대해서 상대방만 아는 손님의 방이다. 세 번째 방은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거실(Living Room)이요, 마지막 네 번째 방은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지성소이다.

첫 번째 방인 비밀의 방이 넓은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두 번째 방인 손님의 방이 넓은 사람은 자신을 잘 모르는 여러사람이지만, 세 번째 방인 거실이 넓은 사람은 나와 내가 함께 이해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한 네 번째 방인 지성소가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은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지성소가 넓은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거실이 넓은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영적 리더의 모습이요,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방이 넓은가?

리더십의 영역을 넓혀라

역대상 4장에 보면 유다의 자손 중 아베스가 등장한다. 성경에는 아베스에 대한 언급이 없고, 유다의 6대손 쯔 되는 좋은 신장인이라는 정도가 기술되어 있다. 아베스라는 이름은 아픔과 근심이라는 뜻으로, 성경연구가들에 의하면 아베스의 모친이 해산의 고통이 심해서 부르 게 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아베스의 스토리는 "내게 복을 더하사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대상4:10)"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아베스의 기도처럼 영적리더가 되려면 리더십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 지경이라는 용어

에 대해 새번역 성경에서는 영토라고 번역했고,坎地임스 번역에서는 Territory라고 번역했다. 이것을 연구해보면 토지, 영토 등의 소유를 뜻하기도 하지만 지식이나 전문, 전문 분야를 의미하기도 하고, 지배 능력이야 통치 지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시대를 이끌 진정한 영적 리더가 되려면 리더십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

소명을 기억하고 삶을 생각하라

건강, 재물, 실력을 목적삼지 말고 열매 맺는 믿음 확장해야 은둔생활 벗어나 새로운 사람 찾아 관계 맺고 네트워크 형성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영역확장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리더는 소명을 기억하고 삶을 생각해야 한다. 주후 8세기경 서부 유럽을 기독교로 통일한 사람 샤를마뉴 대제가요. 이 사람의 무덤을 200여년 전에 발굴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는데 놀라운 것은 한 손에는 황제의 홀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릎 위에 펼쳐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구절이 마가복음 8장 36절인데 그 내용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였다. 지금 하는 일로 인해 바쁘고 분주하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소명을 기억하고 삶을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할 줄 아는 리더는 마음의 여유를 통해 연락(宴樂)이나 쾌락(快樂)에 빠지지 않는다. 이 시대의 영적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허무하고 속된 것에 귀중한 자기 자신을 내버리지 않는 믿음이다.

전문지식을 넓히고 리더십을 향상시켜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영역확장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리더는 전문지식을 넓히고 리더십을 향상시켜야 한다. 아베스는 하나님께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아베스가 나중에 유명한 율법학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아베스의 이름으로 율법 연구 모임을 가졌고, 그 모임 장소를 아베스라고 불렀다고 전하고 있다. 그 근거로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아베스에 거한 시기관족속'이라는 말이 나온다. 시기관들이 아베스에 살았다는 말이다.

아베스는 고통, 근심이란 뜻으로 불행한 이름이고 생애에 악재이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악재를 염려와 불만과 고통으로 대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인생을 고통과 근심에서 만족과 기쁨으로 바꿔 놓으셨다. 이것은 우리 영적 리더들에게 아주 좋은 롤 모델이 된다.

영적리더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환난과 근심을 버리고 자신

의 삶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 영적 리더는 전문지식을 넓히고 리더십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 시대를 이끄는 영적리더가 되려면 눈치를 보면서 세상 풍습이나 유행을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서 전문지식을 넓히고 리더십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

가치 있는 일에 힘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영역확장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리더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실력을 쌓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선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누리며 살다가 죽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영적리더로서 내 믿음으로 나는 어떤 리더십의 열매를 맺을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아베스와 같이 넓혀진 믿음의 지경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영역확장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리더는 좁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리더가 되려면 작은 생각에 머물러안 된다. 리더는 작은 생각을 넓히고 좁은 마음을 넓혀야 한다. 이것을 위해 영적리더는 은둔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리더의 삶속에서 큰 일을 행하시려 할 때는 리더의 삶에 새로운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맺게 하신다. 리더가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다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게 마련이다. 리더가 새로운 만남을 통한 어려운 순간도 가까이 받아들이고 때 마다 이런 관점이 리더의 지경을 넓혀주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바로 이런 인간관계가 리더에게 도전을 주고 영감을 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새로운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리더가 되려면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리더의 영역을 넓혀 주실 것이다.

불편한 사람을 만나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영역확장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리더는 불편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리더의 영역은 넓혀진다. 그러므로 리더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지경을 넓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하기 편한 사람들과만 어울린다. 그러나 리더가 되어 지경을 넓혀 가려면 불편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가져야 한다. 이 시대를 이끌 영적 리더가 되려면 적극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편안한 사이가 되어 가도록 힘써야 한다. 하나님은 리더에게 리더십의 영역을 넓혀라는 말씀을 불편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의 방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라는 뜻이다.

지금 당신이 속한 그룹이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영역확장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서둘러서 불편한 그룹을 찾아 떠나야 한다.

sondongwon@g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신나는 삶

가장 이기적인 마음이 가져다주는 것은 게으름이리라. 깨어난다는 것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습관이 바뀌면 습관에 가려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보이게되고, 그 가운데 주위에 신음하며 아파하는 소리도 들리는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한 번도 벼랑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나에게 날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평생을 산다. 내 바운더리를 넘어가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인지 알게 아닌가 말이다.

매일 같은 날을 살아도 어떤 날에는 살아있다는 것이 절절한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어오던 전혀 처음 가는 길로 여겨질 때가 있으며, 매일 같은 일을 해도 내가 하는 일이 지겨운 일이 아닌 참 감사한 일로 여겨질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맘에 감동이 임할 때이다. 그렇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용기도 두려움도 사랑도 미움도 또 기쁨도 슬픔도 모두가 내 생각 하나에 달렸는데... 사실은 그 생각 하나 다스리기가 그렇게 힘든 일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예레미야 6장 19절에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도 주시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시나면 그들의 생각에 따라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렇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의 내용과 방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한다는 말일 것이다.

아내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나가면 화를 내는 남편이 있다. 왜 그럴까? 사연이 있어서이다. 나처럼 엄마와 단 둘이 살던 이 아들은 엄마가 밤마다 화장을 짚게 하고 술집에 일하러 나가는 게 너무나 싫었다. 사연이란 사람마다 가슴에서 풀리지 않는 사무친 이야기이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면 자기 사연의 필터를 끼고 그 문제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 사연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그렇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의 생각을 사연에 묶어버리는 일이라. 그래서 사람은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침질을 받는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내 생각을 빼버리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넣을 수 있는 힘을 자꾸 길러야 하리라. 내가 내 생각을 지배해 버리지 않으면 내 생각이 필경은 사망의 길로 나를 질질 끌고 갈 테니까 말이다. 그게 영성이고 신나는 삶이 아닐까?

'신나는 삶'이란 '내 안에 있는 신이 나를 통해 나오는 삶'이 라는데 그게 바로 성령충만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내 인생가운데 무엇으로든 세상이 기어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진짜 '신나는 삶'이 아닐까. 사람들은 쓴자 왕따 되지 않으려는 몸부림 때문에 오히려 목욕이 높아지고 또 다른 아픈 자욕을 내며 산다. 너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싫으니 그러는 거겠지... 외로운 게 두려워서 그러는 거겠지... 서로의 무관심한 소의 때문에 서러움이 복받쳐 그러는 거겠지... 그래서 공동체 한 복판에서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자들에게 삶의 안부를 물어주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주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는 '신나는 삶'이 해가 갈수록 더욱 풍성해지면 좋겠다.

한 해의 후반기를 맞이하여 옷 마무새를 다시 여미며 이 한 해의 소중함을 만끽해 본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을 조금만 더 기어하며 살자고 다짐하는 진짜 '신나는 삶'이 너와 나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해 본다.

changsam01020@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h4>뉴욕갯세미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수요 기도 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 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nygodspc@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semane.org</p>	<h4>뉴욕목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p> <p>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연구: 오후 08:00 금요예배: 오후 08:00 세례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kyang.org</p>
<h4>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p> <p>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전 08:45 세례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화,토)</p> <p>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eeKlyn, NY 11223 www.kcc.org</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재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lbae.com</p>	<h4>뉴욕새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화-토)</p> <p>Tel. (917)733-7387 45-16 162 St., #2/F, Flushing NY 11358 chungkilee@yahoo.com</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윤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 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3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2:4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 3부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겸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p> <p>http://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h4> <p>담임목사: 이만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신)예배: 오후 8:3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18)7406-7577, Fax. (718)338-1777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www.nyantioch.com</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례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p> <p>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창간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8:30 수요 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p> <p>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찬양예배 오후 8:20분 세례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주비교회</h4> <p>담임목사: 이규분</p> <p>주일예배: 오후 12:30 세례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성경기도: 오후 5:00 영양예배: 오후 1:00</p> <p>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p>	<h4>퀸즈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성경강의: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6:00 금요찬양: 오후 7:30 금요성경기도: 목요일(매주) 오후 7:30</p> <p>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퀸즈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n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4>브라질 새소망교회</h4> <p>담임목사: 박재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p> <p>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AÍ-SAO PAULO-SP-BRASIL</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토)기도회: 아침 7:40 영, 초, 중, 고등예배: 오전 9:30(토)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김성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성경강의: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6:00 금요찬양: 오후 7:30 금요성경기도: 목요일(매주) 오후 7:30</p> <p>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n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수요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h4> <p>선교사: 임한근 목사</p> <p>멕시코 번성교회 교수 E-mail: hanj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ajara MEX(멕시코)</p>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사랑의 주거래 은행

사회생활을 위해서 은행 거래는 필수에 속한다. 신용사회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정보에 따라 허용과 거절이 결정되기도 한다. 물질문명의 발달 그 중에서도 IT의 발전은 신용이라는 아이콘에 의해 그 질이 결정되기도 한다.

이런 시대가기 때문에 신용불량은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신용을 높이기 위해 주거래 은행을 지정하기도 한다. 여러 은행에 분산된 금융거래보다 하나의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하여 신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 때문이다.

이렇게 편리한 카드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정보가 저장된다. 카드가 저장된 스마트폰만 있으면 만통이 된다. 점점 더 편리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다보니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대안이 몸 안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장치다. 대표적인 것이 배리칩이

다. 기독교에서는 이를 666 즉 사탄의 표시로 인지하여 극구 반대한다. 사람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에서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돈을 넣는 것은 언제나 바람직하지 못하다. 세상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죄된 인간에게 땀을 흘리는 수고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셨다. 서면 앓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 하는 편리함으로 파멸의 위기에 직면한 것은 사람이 자초하였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섭리가 아니라는 말이다. "나는 심었고 아כל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는 권하고 질서를 알게 하셔서 본분을 지키라고 하신다. 심고 물을 주는 수고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것이다.

비롯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아무리 모아도 넘치지 않고 아무리 사용해도 절대 모자라지 않는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의 본질과 차이는 하나님이다. 사랑이라는 절대 분석되거나 파악되지 않는 신비는 하나님의 은행에서 대출된다. 무한 대출뿐만 아니라 무한 리필도 된다. 그것도 전부 무료!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4:7, 8).

한다. 어머니의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사실을 말이다. 어머니의 그 무한할 것 같은 사랑은 당연히 하나님에게로부터 부여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남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복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는 사랑의 본질 안에 어머니의 사랑도 들어있다.

hanmac@cni153.org

“APU, LGBTQ에 항복한적 없다!”

일부언론 보도 해명... “성경적 결혼관 포함 복음주의 노선 고수”

아주사피서대학(APU 총장 존 웰레스 박사)는 지난 9월 28일(한국시간) 보도된 기독교 및 크리스천투데이 한국의 “복음주의 아주사피서대학, LGBT 허용...보수의 항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APU는 학교 내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한 우호적인 결정을 내린바 없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우리의 창조주의 목적과 우리 캠퍼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무한히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엄격한 기독교 고등교육을 추구하는 사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모든 학생들을 받아들인다. 이 중요한 문제와 관련된 대화에서 테이블에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LGBT 학생들은 모든 학생과 학생 그룹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와 진리를 소개할 수 있도록 따뜻한 환경과 사역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자와 학자를 양성한다 등이다.

보도된 내용을 번역해 보도했다. 학교관계자는 학교내 일부 학생들이 LGBTQ성향의 학생들에 대해 불이익을 당해온 것이 부당하다며 우호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으며 그들 중심으로 인터뷰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방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도가 된 것을 이 두 언론사가 그대로 보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8회 사우스베이 교회연합 찬양제에서 전출연자들이 연합으로 찬양하고 있다

사우스베이목사회 주관 8개 팀 참가

제 8회 사우스베이 교회연합 찬양제 성황

제 8회 사우스베이 교회연합 찬양제가 9월 30일 오후 5시 30분부터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회장 안병권 목사) 주관으로 남가주살롱교회(김준식 목사)에서 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상훈 목사(주비전교회) 사회로

열린 찬양제는 수원패밀리교회(장경일 목사, 지휘 이명환) △한인소망교회(윤복 목사, 지휘 안성훈) △트랜스조은교회(김우준 목사, 지휘 조규영) △트랜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 지휘 최정우) △남가주살롱교회 헤세드 남성중찬단(지휘

제갈소망) △트랜스선한목지교회(김현수 목사, 지휘 김승수) △남가주기쁨의교회(이황영 목사, 지휘 최순식) △남가주살롱교회(김준식 목사, 지휘 제갈소망)이 참가해 아름다운 성가를 불렀으며 이날 참가한 모든 팀들이 연합(지휘 안성훈)으로 찬양한 후 최학량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황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장경일 목사(원패밀리교회)가 대표로 기도하고, 안병권 목사(회장)가 “천국을 맛보기”(계4:9-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준식 목사가 축도했다.

안 목사는 “천국엔 날마다 찬양의 소리가 들린다. 찬양을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천국을 갈 기회가 생긴다”고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신입회원 3명 가입, 1명 이명

CRC 코암노회 가을 정기노회

CRC 교단 코암노회(노회대표: 서기 임지석 목사)의 2018년 가을 노회가 9월 25일 사랑의 동산교회(담임 김원기 목사)에서 있었다. 노회 전 예배는 윤성원 목사가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인도하고 성찬예식을 집례 했다. 출석 회원 20명에 대한 회원 점명이 있는 후 의장 문재성 목사가 개회를 선언함으로써 노회가 시작됐다. 이날 신입회원 가

입을 위해 특별히 3명의 총회대표를 포함한 노회 영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3차 시합이 있었는데, 후보자들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가입이 허락됐다. 신입회원은 △이성철 목사(ANC 베이커스필드교회) △김성진 목사(하사랑교회) △정현모 목사(사랑의 빛진자교회) 등 3명이다. △이성철 목사(ANC 베이커스필드교회) △김성진 목사(하사랑교회) △정현모 목사(사랑의 빛진자교회) 등 3명이다. △이성철 목사(ANC 베이커스필드교회) △김성진 목사(하사랑교회) △정현모 목사(사랑의 빛진자교회) 등 3명이다.

역하는 3명 목사와 해당 교회의 가입이 이뤄졌다. 또한 1년여 전부터 논의됐던 여성 목회자 영입의 결실로 라스베이거스 로고스교회를 담임하는 조묘숙 목사의 본 노회로의 이명이 있었다. CRC 교단에 관심이 있는 목사들은 코암노회 서기 임지석 목사에게 전화(213-219-9229)로 문의해주시기 바란다. (기사제공: CRC 코암노회)



CRC코암노회에서 노회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최한 2018 해외한국어방송 대상에 미국 CTS기독교TV의 '퀘바디스 파스트로-목사님 어디가세요'(TV 부문)와 시애틀 라디오 한국의 '강원도에서 피어나는 꿈의 아리랑'(라디오 부문)이 선정됐다

2018 해외한국어방송 대상에 미국CTS 수상 '퀘바디스 파스트로-목사님 어디가세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최한 2018 해외한국어방송 대상에 미국 CTS기독교TV의 '퀘바디스 파스트로-목사님 어디가세요'(TV 부문)와 시애틀 라디오 한국의 '강원도에서 피어나는 꿈의 아리랑'(라디오 부문)이 선정됐다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밝혔다. 지난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DirecTV 채널 2092(CTS America)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8:30 방영(재방6pm)된 '퀘바디스...'는 LA 이

민교회를 이끄는 목회자 4명의 본격 여행 토크 프로그램이다. 나성남교교회 한성운 목사, 하일랜드코너스톤교회 오윤태 목사, 토기장교회 임경남 목사, 선한정치기교회 송병주 목사가 1박 2일간 캘리포니아의 유적지와 바닷가, 박물관 등을 돌아보며 자신들의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퀘바디스 파스트로-목사님 어디가세요'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의 이야기와 목회자들의 진솔

한 자기 고백 등이 비신앙인에게도 거부감 없이 전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나요?'를 묻고자 하는 기획의도가 숨겨져 있다. 한편, 라디오 부문 대상에는 시애틀 라디오 한국의 '강원도에서 피어나는 꿈의 아리랑'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9월 11-14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해외한국어 방송인대회' 개최식에서 진행됐고 대상을 받은 방송국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됐다. CTS는 미주에서 DirecTV 2092와 미 동부에서는 Cable vision을 통해 시청할 수 있고 '퀘바디스 파스트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 시보기 할 수 있다. 미주 CTS(CTS America)는 미주 한인성도들의 기도사연과 지역뉴스, 해외한인선교 소식을 전하는 In His Time을 비롯해 미주 한인교회 설교, 칼럼, 간증 및 찬양 등으로 24시간 복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사제공: CTS America)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Table with subscription rates for 1 year: USA \$100, Canada \$110, Korea \$190, Europe \$190, Africa \$190.

Subscription form with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and payment method.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gmail.com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교협 정기총회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목사) 45회기 정기총회가 10월 22일(월) 오전 10시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투표를 위해 10월15일까지 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선거인단 등록은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문의: (718)279-1414

동부개혁장신 제 32회 찬양의 밤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2018 제 32회 장학기금을 위한 찬양의 밤이 11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3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지휘 윤원상, 반주 나윤주.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 7일: 뉴욕 성실장로교회(담임 이길호 목사) 저녁 8시 14일: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21일: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

▲문의: (718)463-7163

퀸즈장로교회 건축 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건축 바자회가 10월 13일(토) 본 교회 지하 친교실과 과깡에서 열린다. 바자회품목은 예년과 같이 의류, 잡화류, 음식류, 과일류 등 다양하다. 이번 바자회에는 한어권 뿐 아니라 영어권, 중국어, 러시아어 회중들도 참여한다.

▲문의: (718)996-4040



KAPC 뉴욕남노회 제15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KAPC 뉴욕남노회 제15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일원 노회를 중 마지막으로 9월 25일 뉴욕남노회(노회장 권영국 목사)가 제 15회 정기노회를 사랑으로사는교회(담임 권영국 목사)에서 열었다. 뉴욕남노회는 총회장 김재열 목사가 속한 노회다.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조덕남 목사 인도로, 기도 조성희 목사, 설교 권영국 목사, 성찬예식, 광고 조덕남 목사, 축도 김재열 목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권영국 노회장은 예배소서 3장 1-13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성찬예식은 전현수 목사 집례로, 기도 박준영 목사, 분병 영형

국 장로, 분산 광병국 장로의 순서로 진행됐다.

권영국 노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무처리는 회원점명, 개회선언, 절차보고, 광고와 출석위원 선정, 서기 사무보고, 각 부(현의임사부, 고시신학부, 은급재정부, 교육부, 청소년지도부, 감사부, 전도구제부, 선교부) 보고, 시찰회 보고, 신·안건 토의, 내회 장소, 회록 채택, 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고시부에서 뉴욕사랑의교회(이재덕 목사) 목사고시 1명과 뉴욕센트럴교회(김재열 목사) 장로고시 6명에 대한 청원이 있었다. (기사제공: 뉴욕남노회)

“성령의 역사로 장막터를 넓히라”

고 이승운 목사 20주기 추모예배 및 세미나

고 이승운 목사 20주기 추모예배 및 세미나가 지난달 29일과 30일 후리성제일교회에서 열렸다.

30일 오후 5시 열린 추모예배는 김정호 목사(후리성제일교회 담임) 인도로 기도 윤국진 목사, 특별찬양 후리성제일교회 찬양대, 설교 조영진 감독, 특별찬양 뉴욕연회 목사찬양대, 영상, 추모시 김해종 목사, 장철우 목사, 박정찬 감독(대독 이용보 목사), 축도 김상모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조영진 감독(UMC 은퇴)은 “네 장막터를 넓히라”(사54:1-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고 이승운 목사는 최고의 신인 하나님을 최고의 정성을 다해 최고의 헌신을 했던 분”이라며 그의 헌신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감독은 본문에서 “이사야는 절망적인 바벨론 포로생활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승운 목사는 후리성제일교회를 미 전제 한인UMC교회 중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키며 UMC 내[서] 인종을 초월하는 일에 헌신하고, 전 세계에 학교를 설립했으며, 비관자를 가슴에 품음으로 포용의 장막터를 넓혔다. 그 장막터를 넓히는 근원력은 성령의 역사였다. 남기신 그 유산과 자취를 성령의 총만함을 받아 이어가자”고 말했다.

29일 열린 기념세미나는 “이승운 목사의 선교와 목회”라는 주제로 안찬호 선교사(캐나 마사이족)와 전재덕 선교사(쿠바), 조영철 선교사(러시아)가 “이승운 목사와 선교”에 대해 발표했다.

이용연 목사(미드허드슨연합감리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본 이승운 목사의 목회와 신학”, 이용보 목

사(뉴욕한인교회는) “고 이승운 목사님의 목회리더십”, 김종일 목사(뉴욕성서연합감리교회)는 “고 이승운 목사님을 회고하며...”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승운 목사의 선교에 대해서 안찬호 선교사는 △팔방까지 찾아가는 선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선교 △모교회 복사판을 만들지 않는 선교를 언급했다.

전재덕 선교사는 이억학 사모로 연결돼 지난 20년간 지속돼온 아모스선교회에 대해 소개했다.

조영철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영혼찾기 △현지의 선교 △돈이 아닌 믿음으로 △지속적인 희생으로 하셨다고 밝혔다. 고 이승운 목사는 감신을 졸업하고 도미해 세인트폴 미국인교회와 로렌스한인교회, 센트럴UMC, 웨체스터한인중앙교회 등에서 사역했으며 UMC총교및인종국 부국장을 연임하고 1893년 후리성제일교회로 사역지를 옮겨 98년 9월 소천할 때까지 사역했다. 96년에는 UMC한인교회전국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유원정 기자)



고 이승운 목사 20주기 추모예배를 마치고 순서말은 이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저지교협 새 회장에 흥인석 목사

제22회 정기총회, 부회장 장동신 목사 선출

뉴저지교협 제 22회 정기총회가 지난 27일 오후 7시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열려 신임회장에 흥인석 목사, 부회장에 장동신 목사를 선출했다. 또 감사는 최준호 목사, 최봉호 장로로 선출됐다.

21회기 회장 윤명호 목사는 인사말을 대신한다며 △회비수납으로 운영되는 교협이 구조적 문제로 회원들이 회비수납을 하지 않아도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거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져 후보들의 자격을 검증할 공천위원회 등이 필요하며, △총회에서 임원 구성을 함으로 원활한 교협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회칙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뉴저지교협 제 22회 정기총회에서 신구 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원들은 임원회에 임임해 특위 구성을 하고 6개월 이내로 임시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회의는 윤명호 회장의 인사에 이어 이의철 목사의 개회기도 후, 서

기 감상용 목사가 회원점명했으며 전회의록 낭독, 사업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교협회관 회계보고, 역사편찬위원회 보고, 협력선교단체 보고, 신임회원 인준 및 환영, 회칙 수정, 임원선거의 순서로 진행됐다.

31회기는 주요 사업으로 △증경회장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취임예배 △신년하례식 △기주간담회 △기독교이단 세미나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어린이 성경암송 페스티벌 △호산나 어린이 찬양대회 △사모영성회복 세미나 △호산나 전도대회 및 목회자 세미나 △선교사/목사 가족 무료건강검진 △이민자보호교회 설명회 및 무료법률상담 △뉴저지교협 역사편찬 전시회 △디딤돌아카데미 설명회 및 가을학기 또 총회 후 11월 10일(토)에는 “드림어 요셉” 창작 뮤지컬 공연이 남아있다.

감사 김태수 목사는 “작년 수재의연금 2만 달러가 잘 전달되고 종교개혁집회, 건축위원회 회계진행도 회계보고는 총수입 87,785.31달

양회를 제외했으나, 서부 사정상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동부노회 만이라도 목회자가족수양회를 갖자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장규준 목사 인도로 기도 김충천 목사, 설교 주효식 목사, 감사기도 서문도 목사, 축도 송원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부노회장 주효식 목사는 “있을 때 잘합시다!”(행20:2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는 천하와 바꿀 수 없는데, 그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사도 바울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묻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증거 외에는 없다”고 단언했다.

주 목사는 “그러면 왜 복음증거에 목숨을 거는가? 주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이다. 생명 있을 때 한눈 팔지 말고 잘하자. 사도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 이 시대에 쓰임받자”고 역설했다.

예장(백석, 대신)은 미주내에 3개 노회가 있으며 서부쪽 2개 노회와 미주동부노회가 있다. 이번 미주동부노회 노회에는 캐나다 토론토와 텍사스, 위스콘신, 메릴랜드, 업스테이트뉴욕 등 멀리서 회원들이 참석해 환영을 받았다.

한편 3명의 목사안수식은 10월 7일(주) 오후 5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예장(백석, 대신) 미주동부노회 추계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신임회원 1명, 탈퇴 1명, 목사안수 3명

예장(백석, 대신) 미주동부노회 추계 정기노회

예장(백석, 대신) 미주동부노회 제 56회기 추계 정기노회가 1일 오후 4시 뉴욕선민교회에서 열렸다.

함성은 목사 기도후 노회장 한선희 목사의 사회로 37명(위임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는 신임회원 가입(주심교회, 이지훈 담임목사), 각부 보고, 안건처리, 신안건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기보고에서는 임원회 보고와 함께 △위터타운교회 설립예배 및 김석양 담임목사 추대 예배 △브라운스빌원문교회 장로임직예배 △온두라스 최문재 선교사 방문 △한국총회 참석 등이 있었다.

회계보고는 총수입 12,789.45달러, 총지출 6,167.72달러, 잔액 6,621.73달러로 보고됐다.

이날 목사안수 청원서를 제출한 3명-양명철 강도사(뉴욕주심교회), 문삼성 강도사(뉴욕영안교회), 김혜영 강도사(미주동부노회 선교부)과 지난 노회에서 준회원으로 가입허락된 배대진 전도사(비브리컬 재학중)가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김정숙 목사의 탈퇴청원이 수락됐다.

신안건으로는 캐나다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남 김드보라 목사부부가 노회인준 신학교로 허락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노회는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논의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전 미주내 노회들의 가족수

퀸즈한인교회 4대 담임에 김바나바 목사

9월 30일 공동의회서 89% 지지 받아

퀸즈한인교회는 지난 9월 30일 공동의회를 열고 김바나바 목사(46세)를 4대 담임목사로 결정했다. 김 목사는 1주일 전 열린 공청회에서 두 후보를 놓고 투표한 결과 81%의 지지를 얻어 최종후보가 됐다 공동의회에 단일 후보로 오른 바 있다.

공동의회에서는 총 투표수 410표 중에 찬성 363, 반대 43, 기권 1, 무효 3표로 89%의 찬성으로 평빙이 확정됐다.

김바나바 목사는 1972년생으로 현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5년 3개월 동안 동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다.

김 목사는 OM 소속 선교사로 이스라엘 선교지에서 역시 OM 네델란드 소속 선교사였던 김리디아 사모(네델란드인)와 만나 결혼하고 1남3녀를 두었다.

김바나바 목사는 한국에서 한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 남침례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와 설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목사안수는 2007년 하나님의성회(A/G)에서 받았다.

미국에서 공부하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루이빌의 두 한인교회에서 EM 목사와 임시담임 목사로 사역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러, 총지출 85,222.82달러, 잔액 2,562.49달러다. 잘 진행됐다”며 “감사는 회장의 호, 불호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신규가입 교회는 △꿈꾸는교회(C&MA, 담임 이재두 목사) △하회커뮤니티교회(미주예성, 담임 서정학 목사) △승리하는교회(AG, 담임 김영훈 목사).

총 32명이 참석해 박수로 추대된 회장 흥인석 목사(하늘문교회 담임)는 “1986년부터 플러싱에서 청소년 사역을 30년간 해왔다. 영어 사역이 더 편안하고 익숙하다”며 “한어권 사역에 이어 교협사역까지 하게 됐는데, 다음세대와 함께 갈 수 있는 교협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부회장 후보로는 장동신 목사와 최준호 목사가 추천됐으나, 최 목사가 사임함으로써 장동신 목사가 박수로 추대됐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흥인석 목사 인도로 기도 강영안 장로, 성경봉독 백영두 목사, 찬양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말씀 김중국 목사, 헌금극송 뉴저지장로성가단, 광고, 축도 허상회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중국 목사(직전회장)는 “복음의 메시지”(마1: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뉴저지교협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길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며 “첫째, 차별 없는 복음의 마음을 갖고 지역을 섬기라 둘째, 여인들 이방인들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있듯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 섬기라 셋째, 예수님은 회복과 치유 뿐 아니라 미래가 없는 이들에게 비전을 주셨듯이 뉴저지교협은 종들을 세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했다.

뉴저지교협은 이날 역사자료집(1987-2018)을 배부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마지막 임실행위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정부회장 후보 정견발표 가져

제 44회기 뉴욕교협 마지막 임실행위원회

제 44회기 뉴욕교협이 지난달 28일 오전 10시30분 뉴욕그레이트네교회에서 마지막 임실행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미자립교회 지원, 신규가입 교회, 정부회장 후보 정견 발표 등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식 목사(증경회장)의 개회기도 후 시작된 회의에서는 할렐루업스테이트뉴욕 등 멀리서 회원들이 참석해 환영을 받았다.

한편 3명의 목사안수식은 10월 7일(주) 오후 5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들이 계셨음에도 단독으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한다”며 “많이 듣고 열심히 배워서 화합의 분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열 장로(뉴욕목양장로교회)는 “회장, 부회장을 잘 보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원장 신현택 목사는 “돈 안쓰는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자들에게는 후보자 서약서가 배부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부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영환 목사는 “이만호 회장이 선거법 특위를 만들어 첫 임실행위 때 선거개혁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행동이 없었다”며 “뉴욕교계에 금권 선거, 압력 가하기 등은 없어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양민석 목사 인도로 기도 이기용 목사, 성경봉독 김주열 장로, 말씀 김승희 목사, 광고 김진화 목사, 축도 이재덕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승희 목사(증경회장)는 “선발”(요12:3-5)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선발은 여러 사람 가운데서 뽑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정확하게 선발하신다. 마귀도 마찬가지로 마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는데, 이를 수행한 가룟 유다를 뽑았다. 가룟유다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보고 분노했다. 분노하면 마귀가 급속도로 달려온다. 분노는 중요, 저주의 마음을 가져오고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 교계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 분노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 화목하는 교협, 성숙해지는 교협이 되도록 하자”고 전했다. (유원정 기자)

정견발표는 목사회장 정순원 목사, 목사부회장 양민석 목사, 평신도부회장 김주열 장로가 순서대로 했다.

정순원 목사(빛과소금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계와 뉴욕사회를 섬기겠다”며 “정직, 진실, 의를 바탕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교계가 되도록 열심히 섬기겠다”며 후원을 부탁했다. 양민석 목사(뉴욕그레이트네교회)는 “여러 후보

“Hill Our Land” 주제...중간선거 겨냥 10월28일 은혜한인교회, 2018 다민족연합기도대회

2018년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Multi Ethnic Prayer Gathering)가 오는 10월 28일(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다. “Hill Our Land”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는 오는 11월 6일에 치러질 미국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치러진다.



2018다민족기도대회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대회에 앞서 주최 측은 27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새교우실에서 이번 기도회에 대한 설명회를 겸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회 관계자 및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다민족 기도회 준비위원장인 강순영 목사의 사회로 참가자 소개, 홍보 동영상, 환영인사, 개회기도, 메시지, 대회 설명, 질의 및 응답, 격려와 도전, 태아 생명 보호에 대해, 합심기도, 알림, 점심식사와 교재의 순서로 진행했다.

정세의 중심에 세워져 있는 미국이 성경에서 멀리 벗어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런 부부의 심각성을 인식한 크리스천들이 모여 이러한 이슈들을 놓고 기도하게 됐다”고 기도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한인교회가 연합하는 것도 어려운데 다민족이 연합해 기도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

이후 이서 목사(공동준비위원장)

의 개회기도에 이어, 척 콜슨과 함께 교도소 사역을 했던 월터 터커 박사(Walter Tucker, Truth and Love Christian Church 목사, 변호사, 연방하원 의원)는 시카고에서 사역할 당시, 높은 살인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물렸을 때 ‘회개와 기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회의 핵심 미션을 ‘회개, 부흥, 회복’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강순영 목사(준비위원장)는 지난 연합기도회를 통한 구체적인 결과와 대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강 목사는 “다민족기도대회는 지난 2011년 데이비드 안드레이드 목사(David Andrade, Executive Director of A Line In the Sand)를 중심으로 시작된 11/11/11 대회와 2014년 11/11/14 대회로 열렸으며 2015년부터 한인이 주도하는 대회로 전환돼 매년 기도회를 열어왔다” 설명했다.

강 목사는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는 정책들을 시행해왔지만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회를 열어온 것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포함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부의 중진들이 미국을 하나님께 되돌리고 있다. 예를 들면 ‘종교 자유행정명령’의 서명을 통해 종교적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됐으며 트럼프 미 대통령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게 한 것”이라 언급했다.

그는 이번 대회의 목적은 ‘미국의 대부흥’과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및 ‘성경적 가치관의 회복’과 ‘선교 운동의 활성화’다.

(박준호 기자)



나성금관교회 이석부 담임목사 파송감사예배에서 이석부 목사가 문답하고 있다

“하나님사랑으로 목회, 지역사회위해 봉사”

나성금관교회 이석부 담임목사 파송감사예배

나성금관교회 이석부 담임목사 파송감사예배가 9월 30일 오후 4시 성황리에 열렸다. 이석부 목사는 “나성금관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성실히 담임목회를 수행하겠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회할 것이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 금관교회 담임목사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목회하겠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며 사역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사가 ‘마음을 다하는 지도자’(삼상 16:1-3)라는 제목으로 전했으며 윤선식 목사(2대 담임)가 격려사를, 본 교회 색서폰 팀이 축하연주, 한인연합감리교회 코커스 목사& 사모 합창단이 헌금찬양을 했다.

이어 찰스 캐틀 장로가 담임목사 소개를 했으며 마크 나카가와 감리사가 이석부 목사에게 담임목사 위임을 했다.

이어 이석부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으며 취임패가 증정됐다. 그리고 김낙인 목사(한인연합감리교회 코커스 회장)가 축사를 했다. 이날 예배는 김용민 목사 축도로 마쳤다.

본 교회 4대 담임 이석부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졸업(BA)했으며 1994년 도미, 클레어몬트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Div)와 박사(D.Min) 학위를 받았다. 가족으로는 부인인 이성희 사모와 하버드대학교에 재학 중인 딸(프랜시스)이 있다.

(박준호 기자)



월서연합감리교회 신영각 담임목사 취임예배에서 신영각 목사가 취임문답에 임하고 있다

“은사 주신대로 부르심 주신대로 사역”

월서연합감리교회 신영각 담임목사 취임예배

월서연합감리교회 신영각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9월 30일 오후 12시 2부 예배시간에 거행됐다. 이창순 원로목사 집례로 열린 취임식은 집례자가 격려의 말씀을 전한 후 취임문답으로 이어졌다. 문답은 집례자와 취임목사 간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며, 질의응답 후 교인들이 담임목사 취임을 허락하는 서약을 했다. 이어 집례자가 기도했으며 예배종정이 있었다. 신영각 목사는 “로마서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다. 은사 주신대로 부르심 주신대로 후회 없이 열심히 사역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취임식 전 열린 예배는 박경 장로가 기도했으며 한선희 집사가 성경봉독 했으며, 할렐루야 성가대 특송에 이어 신영각 목사가 ‘산상 설교(6): 먼저..., 그리하면’(마 6:25-3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예배는 이창순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이 중에서도 강 목사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으로 연방대법원이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현재까지 6천만건의 낙태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법의 폐지를 청원하는 운동이 시행 중임을 강조했다.

주최 측은 올해 연합기도회에는 큰 교회와 중소 교회들의 존경받는 이들이 기도 강사로 참가할 것이며, 다음 세대들이 이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8명의 차세대 지도자들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미 주류교회의 참석이다. 월터 박사가 아프리카인 아프리카인들을, 치노힐 갈보리체플에서 백인들을 동원하게 되며, 작년에 3백여명 정도를 동원한 히스패닉 교회, 중국인, 유대인, 베트남인 등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회 설명에 이어, 질의 및 응답을 받은 후 데이비드 안드레이드 목사는 지금의 때가 중요한 때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한 죄를 회개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낙태법 폐지를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 모럴 아웃크라이(The Moral Outcry, <https://themoraloutcry.com>)의 앨런 파커 변호사가 낙태반대 운동의 성과와 한국 커뮤니티가 이에 기여할 바를 전하고 낙태는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이며 ‘수정되는 순간 생명이 시작되고’, ‘낙태는 여성에게 상처를 입히며’, ‘낙태보다 더 나은 대안, 안전한 피난소법(Safe Haven Law)’이 있으며, ‘건강한 아이를 입양하길 원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샘신 목사(공동준비위원장)의 인도로 참가자들이 함께 합심기도하고 월터 박사, 앨런 파커 변호사, 한기홍 목사의 기도로 마무리됐다. 한 목사는 “행사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다.

차기 일정은 10월 22일 오전 8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실행위원 모임을 갖고, 25일 오전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기도강사 설명회 및 기도회가,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은혜한인교회 본당에서 기도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유니온교회 창립38주년 기념 선교축제에서 정민영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본 예수님의 교회론

유니온교회 설립 38주년 기념 선교축제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는 설립 38주년 기념 선교축제를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했다. 이번 선교축제는 정민영 선교사(전 GBT 성경번역선교회 대표, 전 WBT윌리프 성경번역선교회 부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집회를 인도했다.

‘소명-세상에서 부름 받아 세상으로 보낸 교회’(요17:11-19)라는 제목으로 첫날 말씀을 전한 정민영 선교사는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이란 뜻이다. 부르심은 목적을 향한 부르심이고 중요한 2개의 화두는 거룩과 연합이다. 부르심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셨기에 세상과는 차별되는 것이며 불러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선교사는 “하나님이 사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낸다. 그런 다음 우리가 그 속으로 되돌아가도록 추진력을 넣어 놓으신다”며 “예수님이 있던 자리에 우리를 두신다. 그래서 그냥 종교생활에 머물면 안 된다. 예수님은 사명을 갖고 오셨다. 그리고 우릴 부르셨다.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이라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영적이 되는 것은 기도할 때나 길을 걷거나 무얼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며 “교회당 안에서 영성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일상으로 지역사회, 일터, 캠퍼스 등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도 스며드는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음대학장 테너 강무림 교수 찬조출연

남가주 연세콰이어 제13회 정기연주회 성황

남가주 연세콰이어(지휘 이정옥)는 제 13회 정기연주회를 9월 29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신영각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종곤 목사(연목회 회장) 기도와 도성환 남가주 총동문회장 인사말로 시작된 연주회는 존루터의 ‘글로리아’, ‘주 보다 더 날 사랑하는

이 없네’, ‘He never failed me yet’, ‘Amor Dei’ 등 성악곡, ‘귀천’, ‘엄마’, ‘라라라’ 등 한국가곡과 가요를 불렀으며 ‘걱정말아요 그대’를 앵콜 곡으로 불렀다.

이날 연주회는 연세대학교 음대학장 테너 강무림 교수가 찬조 출연해 빛내주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사우스베이부도님선교회 창립12주년 감사예배

사우스베이 부도님선교회 창립 12주년 감사예배가 10월 14일(주) 오후 5시 성서장로교회(담임 김병용 목사(1655 W. Marine Ave, Gardena)에서 개최한다. 이날 권오달 목사(에덴장로교회 담임, 해외대신총회 미주노회 증경노회장)이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한다. ▲문의: (310)515-7207, (562)417-4869

토랜스선한목자교회 설립17주년 추계부흥회

토랜스선한목자교회(담임 김현수 목사)는 교회설립 17주년 기념 추계부흥회를 5일(금)부터 7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전기철 목사(강남새사람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5일(금) 오후 7시30분, 6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7일(주) 오전 8시, 11시이다. 한편 7일(주) 11시에 열리는 3부 예배시간에는 설립17주년 감사예배와 권사 임직식을 함께 갖는다. ▲문의: (310)326-2001, 989-4381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수요특강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는 수요특강을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개최한다. 강사는 유범선 목사. ▲문의: (972)258-0991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 33주년 창립 감사예배

나성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 33주년 창립 감사예배가 7일(주) 오후 3시30분 개최한다. 강사는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담임). ▲문의: (951)928-4415

나성한인교회 관계회복을 위한 금요일집회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는 관계회복을 위한 금요일집회를 5일(금)과 12일(토) 오후 8시 개최한다. 강사는 이경업 목사(LA 은누리교회 담임). ▲문의: (323)221-9531

사랑의빛선교교회 가을 가정세미나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는 가을 가정세미나가 ‘현대 문화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명찾기’라는 주제로 6일(토)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본 교회 은혜채플에서 갖는다. 강사는 리처드 박 교수(바이올라대학교)이며 회비는 20달러(부부 30달러). ▲문의: (626)744-9191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 비전부흥집회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 비전부흥집회가 5일(금)부터 7일(주)까지 개최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고전11:1)’라는 주제로 열리는 집회 강사는 박인화 목사(달라스뉴승교회 담임,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 총회 교육부 이사장)이며 일정은 5일(금) 저녁 7시30분, 5일(토) 새벽 6시, 오전 8시, 저녁 7시30분, 7일(주) 오전 8시, 11시15분, 오후 7시30분. ▲문의: (858)279-9191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며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 분은 죄로 죽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형벌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도 당신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당당하게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당신을 향한 예배자가 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였고, 절기에 배를 명령하셨습니다(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등). 또한 5대 제사(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 새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와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징계가 임하였고,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승리가 넘쳐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위로부터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언을 힘을 구하기 전에 참된 예배자의 자세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이 야말로 혼과 영을 담은 전인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몸이 함께 따라주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공예배에 몸이 와서 드리는 자세, 몸의 각춤세를 통해서 드려야 하는 경건의 자세 등이 있어야 하지요. 또한 내려놓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 죄 가운데 있는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드리는 예배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는 나를 채우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신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위로부터 부여하실 것입니다. lilyumc@hotmail.com



제13회 연세콰이어 정기연주회가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청년사역네트워크 ‘기독교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조사

우리나라 청년 5명 중 4명은 개신교가 천주교와 불교보다 배타성이 높다고 인식했다. 비기독교인 청년들은 기독교인에게 ‘타 종교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장 많이 기대했다.

청년사역네트워크(의장 김동영 목사)는 2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교회 청년공동체 다시 세움을 위한 제언 포럼’을 열고 ‘기독교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독교 청년의 79%, 비기독교 청년의 80%가 개신교의 배타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반면 비기독교 청년은 4%만 창조론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청년 5명 중 4명 “개신교, 타 종교보다 배타적”

기독교 청년(57%)과 비기독교 청년(58%) 모두 목사의 사회적 인식 및 이미지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답변의 이유로는 ‘자주 구설에 올라서’ ‘뉴스 등에서 돈이나 성범죄 관련된 기사를 많이 봐서’ 등을 들었다.

성소수자, 창조론 등 한국교회 현안에 대해서는 기독교 청년과 비기독교 청년의 응답이 같았다.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 기독교 청년은 49%가 거부 입장을 취했다. 중립은 41%였다. 이와 반대로 비기독교 청년은 중립(45%)과 지지(42%)를 표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창조론에 관해서는 기독교 청년 65%가 창조론이 옳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진화론이 옳다고 답한 기독교 청년은 11%로 이들 중 75%가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라고 응

답했다. 반면 비기독교 청년은 4%만 창조론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회의 정치 참여에 관해선 기독교 청년(77%)과 비기독교 청년(79%)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유로는 ‘종교에 정치가 결합되면 변질되기 쉽다’ ‘종교가 이익단체 및 정치단체로 활동할 경우 국민의 종교선택 자유 침해가 우려 된다’ 등을 꼽았다.

비기독교 청년이 기독교인에 바라

는 모습에 대해선 ‘타 종교에 대한 열린 태도’(70%·중복응답)가 가장 많았다(그래프). 비기독교 청년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전도 형태에 대해선 ‘기타(43%)’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찬양 버스킹(30%), 관계를 통한 전도(21%), 일대일 대화(3%)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 전도 방식에 대해서는 ‘전도를 하지 않는 것’ ‘노상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란 의견이 있었다.

설문지는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내용에 따라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뉘었다. 첫째는 개신교·불교·천주교의 배타성 및 타 종교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 둘째는 성소수자와 창조론 등 한국교회가 직면한 신학적 문제에 대해 청년층의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셋째는 교회 및 교인, 전도활동에 대한 청년층의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사는 김철원(고려대) 김재우(서울대)씨 등 바람길교회(김동영 목사) 소속 청년들이 지난 5월 26-27일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행인 등 19-37세 청년 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다. 설문대상 중 71명은 기독교인, 120명은 비기독교인이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시도와 연관돼 있음을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는 “2007년 차별금지법을 만들려 했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됐다”면서 “가짜뉴스로부터 우리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서적이지 않더라도 모든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양측 행사장 주변에 100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그러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이 쿼어행사 참가자에게 구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계는 30일 제주영락교회에서 ‘제주 생명사랑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퇴폐적 문화를 막아선다고 다짐했다. 박명일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장은 “청정 섬 제주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퇴폐적 행사가 2년째 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제주 교계는 앞으로 생명축제와 선교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했다. 이어 “인권관력을 남용해 가짜뉴스, 댓글공작, 극우세력 등으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처사로 볼 수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생명송 공계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에스터기도운동과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교계인사들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겨레에 구체적 근거와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세월호 사건 배후 구원파” 명예훼손 해당 안돼

대법원,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상고 기각

“오대양 사건 및 세월호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유병언 구원파)”라는 비판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인 정동섭 목사는 2015-2016년 교회

와신앙과 예레미야이단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대양 사건 및 세월호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 구원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유류 모두 살펴보았으나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인 정동섭 목사는 2015-2016년 교회

2심 재판부는 “기독교복음침례회

에서 영향력이 큰 유병언이 오대양 및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면서 “세월호 책임자들의 형사판결에서도 청해진해운을 유병언 일가가 소유한 회사로 보고 세월호와 관련된 책임이 유병언 일가 또는 그 측근들에게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자료는 그동안의 수사나 재판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불과해 사실관계의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확정하는 가치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기독교복음침례회

세종대, 신천지 유관 행사 대관

신천지 IPYG, 세종대 대양홀에서 컨퍼런스 개최 논란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만국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대학 등에서 위장 평화행사를 계속 개최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대) 대표 홍연호와 세종대는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대양홀에서 신천지 유관 단체인 국제청년평화그룹(IPYG)이 “한반도 평화 통일 염원 강연 콘서트”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IPYG는 지난 18일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교주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위장 평화행사인 ‘만국회의’를 주최한 (새)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유관단체다. 전피연 측은 이날 행사가 시작되

기 전부터 학교 당국 등에 항의 전화 등으로 경고 및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일부 회원은 행사가 진행되는 대양홀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IPYG가 행사 직전 세종대 인근에 배포한 행사 홍보용 전단지. 신천지는 지난 18일 각국의 전직 정치인들을 초청해 교주 이만희의 위상화를 위한 위장 평화 행사인 ‘만국회의’를 개최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제공

세종대 총학생회 역시 즉각 반발했다. 세종대 총학생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배움의 터전이 돼야 할 학교가 사이버 종교 집단으로 추정

되는 단체에게 대관을 허가하면서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대학 본부의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세종대는 1947년 기독교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대학이다.

학교 관계자는 행사 시작 직전까지 주최측이 신천지와 연관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양홀을 대관한 주체는 신천지 혹은 IPYG가 아닌 기획사였다”면서 “정확한 행사 내용을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독교 교육 정신에 입각해 세워진 대학인 만큼 신천지 유관단체에서 주체를 숨기고 대관한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신천지, 유관단체 내세워 곳곳서 대관 신청

허가 못 받아 무력으로 점거 후 진행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공공기관을 무시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신천지는 지난 18일 인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새)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대표 이만희·HWPL) 주최로 교주 이만희(87)의 위상화를 위한 위장 평화 행사인 만국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같은 날 경기도 안산 와스타디움을 무단 점거했고 20일에는 세종대 대양홀에서 신고 내용과 다른 행사를 개최했다. 위법이 분명한 만큼 엄격한 법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신천지 신고 2만5000여명이 지난 18일 와스타디움을 무단 점거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3일과 17일 두 차례 대관 불허를 통보한 바 있다. 공사는 “행사 전날 대관을 신청한 (새)세계평화광복회에 대관 불허를 최종 통보했지만 이들은 다수의 물리력을 행사해 출입 통제를 무너뜨리고 행사를 강행했다”며 “법률 자문을 거쳐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평화광복회와 HWPL은 18일 평화 관련 행사를 동시에 개최했다. 공사 관계자는 “세계평화광복회는 대관료 계약금을 자체적으로 계산해 무단으로 입금했다”며 “이를 돌려줄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의 대표가 동일인은 아니라고 공사 측은 밝혔다.

신천지는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

서도 20일 만국회의의 관련 행사를 열었다. HWPL 유관 단체인 국제청년평화그룹(IPYG)은 세종대 대양홀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염원 콘서트”를 진행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대관 주체는 신천지가 아닌 E기획사였다”며 “신천지와 연관된 행사였다면 대관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지의 이런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다. 전승만 법무법인 정담 변호사는 27일 “공사의 설립대로 세계평화광복회 회원들이 한거리에 경기장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면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 320조 특수건조물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IPYG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세종대 대양관을 허위로 빌린 행위

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세종대의 입장을 미뤄볼 때 신천지의 위장 대관은 ‘기망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단 대처 사역이 일부 교회와 사역자만의 일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단 전문 유튜브 윤재택 전도사는 “신천지 행사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 교계의 빠른 대처”라며 “지역 교계에 이단 대처 방안을 논의한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민음 바른미디어 대표는 “인천 도시공사가 HWPL의 대관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경기장에서 만국회의가 진행됐다”며 “단순히 행사를 막는 차원을 넘어 HWPL의 사단법인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32회 기독교문화대상 수상 후보 추천

기독교문화예술원(이사장 소강석 목사)이 주관하고 기독교문화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안준배 목사) 세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대표 회장 이수형목사)가 주최하는 제 32회 기독교문화대상 후보추천을 받는다.

기독교문화대상은 한 해 동안 기독교문화를 발전시킨 문화 예술인을 시상하여, 기독교문화를 형성하고 확산시킨 기독교문화예술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로 32회를 맞는다.

음악·오페라·국악·연극(뮤지컬)·문학·방송·무용(대중음악)의 7개 부분으로 구성된 이 상은 전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발표된 작품으로 저번에 기독교주제의식과 메시지가 담겨있고 일반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고 2019년 10월 22일(월)까지 추천 접수된 후보에 한해 심사해 확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상패 메달 상장이 수여된다. (기사제공: 세계성령운동중앙협)

“청정 섬에 주민동의 없는 음란축제 절대...”

제주귀어행사 반대 ‘제1회 제주 생명사랑축제’ 현장

‘제주도에 절대 음란축제 들이지 마라!’ ‘주민동의 없이 음란축제 허용 허가한 공원녹지와 처벌하라-일도이동 주민일동’. 29일 제주시청으로 향하는 신산공원 주변에는 귀어행사 반대 플래카드가 여러 장 붙어 있었다.

동성애자들은 지난해 처음 가족 공원인 신산공원에서 ‘제주귀어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올 해 또 행사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참나못한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주노회 등은 생명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1회 제주 생명사랑 축제’를 기획했다.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지역 교계의 의지를 막을 순 없었다. 우비를 착용한 1000여 시민은 제주시청 광장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강연을 들었다. 제주영락교회 워십팀, 세바합장단, 제주국제순복음교회 한발위

십팀, 제주제일성결교회 여호수아 찬양팀 등이 나와 문화공연을 펼쳤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동성애를 차별과 인권으로 포장하지 말라’ 등의 꽃말을 들고 신산공원을 거쳐 시청으로 돌아오는 2km구간을 걸으며 생명과 가정의 중요성을 알렸다.

12살, 5살 자녀를 데리고 온 박은경(44·여)씨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한 문화가 지난해 육지에서 제주로 상륙했다”면서 “동성애를 마치 좋은 것처럼 포장해 아이들에게 퍼뜨리려고 하는 세력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학생인권조례 TF, 트랜스해방전선, 정의당, 녹색당 등은 신산공원에 37개 부스를 차리고 물품판매와 기부금 모집 행위를 했다.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은 동성애 옹호·조장론자는 가짜뉴스 프레임이

“한겨레신문에 법적 책임 묻겠다”

에스터기도운동 성명서... “가짜뉴스공장 매도는 기독교 혐오”

에스터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신들을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으로 지목한 한겨레신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최근 “동성애 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은 에스터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3개면에 게재하고 에스터기도운동을 가짜뉴스의 발원지로 지목했다.

에스터기도운동은 성명서에서 “한겨레는 에스터기도운동과 이용희 대표가 마치 악의적인 페이크뉴스 공장인 것처럼 오인시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한겨레의

의도적인 표적 보도 및 위중한 명예 훼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겨레가 한국 내 대표적인 선교단체 중 하나인 에스터기도운동을 ‘가짜뉴스 공장’으로 매도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다”면서 “이는 동성애를 범죄화할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스터기도운동은 한겨레가 ‘가짜뉴스’라고 밝힌 22개 주제에 대한 반박근거를 제시하고 “한겨레의 뉴스가 오히려 가짜뉴스”라고 비판

“우리를 연구 대상 선정한 이유 뭐냐”

복음주의권 6개 단체, 공개 질의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 제103회 총회에서 복음주의권 6개 단체의 설립목적과 성격을 연구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해당 단체들이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다.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성서한국, 좋은교사운동, 청어람ARMC, 복음과상황,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질의서에서 “6개 단체는 교회, 교육, 언론 등 저마다 고유 영역에서 활동한다”며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는지, 연구들

제안하고 시행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해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전 소통이나 토론의 자리 한번 마련하지 않고 총회 결의로 이단 연구하듯 연구하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총회에서 이 사안을 설명이나 토론도 없이 35초 만에 통과시켰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검토해 연구 안건 자체가 잘못이고 졸속 결의였다면 즉각 취소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스코틀랜드 언약도 신앙고백’ 국내 첫 공개

정성구 박사, “한국교회와 성도의 진리수호 열정 회복케...”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 학교나 자유교회 신학교, 존 나스(John Knox)가 목회하던 성자일레교회에도 없는 자료입니다. 그레이프라이어스교회에 보관된 원본을 그대로 담은 사본으로선 세계에서 유일할 겁니다.”

경기도 성남 칼빈박물관에서 지난 27일 만난 정성구(76·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박사는 박물관 한편 보관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관실로 들어가 걸음을 멈춘 곳엔 붉은색 커튼이 있었다. 커튼을 젖히자 누렇게 색이 바랜 종이 영문이 빼곡하게 쓰인 고문서가 나타났다. 그가 가리킨 곳엔 “The confession of faith(신앙고백)”란 문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제2의 교회개혁운동이라 불리

가로 70cm 세로 90cm 크기 문서의 절반 아래엔 필체가 다른 200여개의 서명이 나열돼 있었다. 마지막 서명자의 아래쪽엔 이 문서가 1638년 만들어진 원본의 복사본임을 알리는 문구가 보였다.

“1638년 2월 28일, 1200여명의 스코틀랜드 성도들이 그레이프라이어스교회 앞마당에 모였습시다. 연속하게 신앙고백을 한 후 대표 200여명이 서명을 했지요. 국왕이나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임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선포한 이들은 지붕 없는 갈음에 감히 추위와 굶주림 속에 순교의 잔을 마셨습시다.”

제2의 교회개혁운동이라 불리

는 ‘언약도운동’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성도들의 진리투쟁 운동이다. 국왕 찰스 1세가 왕권신수설을 주장하며 ‘국왕은 국가의 머리인 동시에 교회의 머리’라는 칙령을 내리자 성도들은 이에 맞서다 박해를 받았다. 역사가들은 펄박 받은 성도들을 ‘언약도’라 불렀고 1638년 이후 50년간 계속된 박해로 언약도 1만8000여명이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박사는 “언약서 원본은 그레이프라이어스교회 지하 비밀창고에 보관돼 있는데 380년이 지나니 풍양 잉크로 적힌 글자가 희미해져 알아볼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영국 리치필드의 고문서 전문점에서 언약서 복사본을 발견한 뒤 과거 촬영해 둔 원본과 수십 차례 대조하고 연구했다”며 “영국 빅토리아(1819-1901) 여왕 때 발명됐던 복사기술을 이용해 원본이 손상되기 전에 복사해 둔 문서로서 처음 발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생을 칼뱅주의 연구에 바친 노교수는 “언약도운동을 보면서 80년 전 일제에 무릎 꿇었던 한국교회가 떠올랐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 신학자와 역사가들도 발견 못한 문서를 대한민국 노교수의 품에 안긴 건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장로교회는 신사참배를 가결한 뒤 지도자들이 앞장서 참배했습니다. 애국헌금을 모아 전투기를 만들어 일제에 헌납하고 ‘장로호란’ 이름까지 붙였지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커져 이제 돌기를 주창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일에 같이 몰려 손가락질만 당합니다. 이 색바랜 문서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진리수호의 열정을 회복케 하는 밑알이 되길 소망합니다.”

mission 선교의 창 (110)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선교사가 갖추어야 할 정신적 4대 요소

역사는 장강(長江)처럼 유장하다. 산천은 철따라 변하고 인물은 떠나지만 도도한 물결은 어제나 오늘이나 멈춤이 없다. 주의 나라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그러하지 않을까? 굴곡진 역사의 능선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셨고 당신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해 오셨다.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 되다. 저들은 땅이 아닌 하늘의 가치에 생명을 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부담을 얹은 선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1. 비전(秘電)

비전이란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이상이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11:1)라고 했다.

비전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람의 존재가치는 그가 품은 비전에 달려있다. 따라서 비전을 지닌 자는 그 시선이 오늘을 뛰어넘어 보다 먼 곳을 향해 있다. 동시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한다.

비전의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인 결과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이 사람은 '내일을 향한 가슴 두근거림'이 있다. 그는 눈빛이 다르고 나누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 그는 판단이 신속하고 행위에 일관성이 있다.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오래 고민하지 않는다.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시간과 노력과 땀을 낭비하지 않는다. 한 곳에 집중할 줄 안다. 비전을 품은 사람은 내일을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을 산다. 그는 내일 속에 오늘을 담은 자요, 오늘 속에 내일을 담은 자이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삶에 지친 채 습관적으로 살아갈 뿐이다. 삶이 무기력하고 방자해진다. 인생을 방향하게 된다. 시간과 재물을 낭비한다. 삶에 소망이나 기쁨이 없다. 선교사는 어떠해야 하는가? 모름지기 비전의 사람이야 한다.

2. 진리(眞理)

진리란 무엇인가? 참된 이치이다. 그것은 영원하며 불변해야 하고 인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14:6)이라고 했다. 따라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를 계시해 주는 하나님 말씀이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진리에 인생의 최고 가치를 두고 추구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

교회사를 보면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 그리고 순교자 폴리갑을 비롯하여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진리를 쫓았다. 여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젊음을 송두리째 불태운 한 사람이 있다. 짐 엘리어트(Jim Elliot)이다. 그는 휘튼 대학을 졸업한 후 세상의 미련

비전이란 이상이다.
진리란 참된 이치이다.
도전이란 맞짱뜨는 것이다.
연합이란 둘 이상이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을 버리고 선교사로 헌신했다. 그는 1956년 인생이 꽃을 피우기도 전인 29살 때에 에파도르 쿠라라이 강변에서 순교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진리를 목말라했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시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꼭 찬 삶을 원합니다."

이처럼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으로 자기를 채운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유한한 것을 버린다. 더 큰 것을 위하여 작은 것을 던진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한다. 굳이 순교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선교사는 어떠해야 하는가? 결론코 진리의 사람이야 한다.

3. 도전(挑戰)

도전이란 무엇인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세상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엡6:12)고 했다. 빛의 사자들은 결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기독교 저술가였던 폴 트루니에(Paul Tournier)는 인간의 본능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안정을 추구하는 정착 본능과 새 것에 도전하는 모험본능이 있다고 했다.

대개 인간은 모험보다는 안정을 추구한다.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 이끌어져 간다. 창조적 소수란 어둠의 세력에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는 자이다. 세상 어느 분야든 도전이 없는 곳에는 역사의 진보도 없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수많은 어려움이 밀어 닥친다. 이는 항해하는 배와 같다. 빨리 갈수록 여러 종류의 저항과 위험이 있다. 만일 안전을 고려해 배가 항구에 정박만 하고 있다면 그 배는 존재의미가 없다.

선교는 도전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난관을 믿음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선교사는 어떠해야 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도전하는 사람이야 한다.

4. 연합(聯合)

연합이란 무엇인가? 둘 이상이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성경은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요17:21)라고 말하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지체들이 연합된 한 몸이다.

연합은 결코 통합이 아니다. 영적 공동체 연합은 그 본질상 다양성 속의 통일(Unity in Diversity)을 추구한다. 파스칼은 그의 명저 '팡세'에서 말하기를 통일성이 없는 다양성

은 혼란(Confusion)을 불러일으키고, 다양성이 빠진 통일성은 독재(Tyranny)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합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이 무지개이다. 무지개는 빨, 주, 노, 초, 파, 남, 보의 7색갈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무지개가 한 단색이라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을 것이다. 무지개에는 다양한 색깔이 있고 그것들이 한 몸체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사람들은 무지개처럼 연합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고 있다. 현대 왜 연합을 잘 못하는가? 토마스 왕(Tomas)목사는 "누가 중심이 되어 헤게모니(Hegemony)를 손에 쥔 것인가?" 라는 주도권(Initiative) 싸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탐욕 때문에 2천년 기독교회가 얼마나 많이 사탄의 침노를 당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쟁투와 분열은 사탄의 영역이요 연합은 성령의 영역이다. 그러면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한 영적 공동체를 자각하고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주는데 힘써야 한다. "二人同心(이인동심)이면 其利斷金(기리단금)이요, 同心之言(동심지언)이면 其臭如蘭(기취여란)이라" 이는 周易(주역)에 나오는 말이다. 즉, "두 사람의 의견이 맞으

면 그 힘이 쇠를 끊을 수 있고 서로 의견이 맞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라는 뜻이다.

선교사는 어떠해야 하는가? 억지로라도 연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맺음 말

세상이 변혁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의 문턱에 서 있다. 가치관이 변질되고 절대 진리가 상대화되는 오늘날의 시대, 사명자로서 부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우리는 깨어 성령님의 위로와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늘의 그 음성을 들은 자는 결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저들은 비전을 보게 된다. 진리로 무장하게 된다.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날아 올라가듯 도전하게 된다. 그리고 주님의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게 된다. 그 곳에 선교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삶은 어찌 극소수의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랴!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힘써 추구해야 할 정신적인 요소가 아닌가?

jsong007@hanmail.net

고통 받는 재일조선인 섬겼던 캐나다 선교사들의 사랑...

'재일동포 캐나다 선교사 전시실' 토론토 근교 개관



캐나다장로교회 소속 선교사 루터 영(Luther L. Young) 목사는 1906년부터 원산과 함흥 등지에서 활동했다. 북음주의자였던 그는 1925년 캐나다장로교회의 3분의 2가 다른 교파와 함께 캐나다연합교회라는 진보 성향의 새 교단을 만들자 가입을 거부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귀국길에 일본 요코하마에 들른 그는 재일 조선인들을 만났다.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이를 안타까워한 영 목사는 캐나다에 도착한 뒤 캐나다장로교회에 보고했다. "조선 땅 대신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에게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나를 파송해 주십시오."

1927년 캐나다장로교회의 재일동포 선교는 이렇게 시작됐다. 영 목사는 부인 미리암 영과 함께 일본 고베로 갔다. 영 목사는 열정적인 사역을 펼치며 조선인 교회들을 모았고 새로운 교회도 개척했다. 이후 영 목사의 선교팀에 캐나다 선교사들이 합류했고 선교활동이 확장됐다. 1934년까지 교회와 신자 수는 두 배로 증가했다. 영 목사는 캐나다장로교회에 "도교를 비롯해 나고야, 큐슈, 홋카이도까지 전도자의 발자취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영 목사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앞두고 외국인 선교사들을 압박하자 어쩔 수 없이 캐나다로 귀국했다가 1949년 74세의 나이에 일본으로 돌아온 뒤 사역하다 별세했다. 고베 외국인묘지에 안장된 그는 생전에 종종 자녀들에게 "전국에 오거든 나를 한국인들 가운데서 찾으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캐나다장로교회는 지난 90년간 34명의 선교사를 파송, 복음을 전했고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차별 받는 재일동포를 위해서도 힘을 써 준 매킨토시 선교사의 경우 1970년대 한국인의 지문 날인에 반대에 일본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이처럼 재일동포를 위해 일생을 바친 캐나다 선교사들을 기념하기 위한 '재일동포 캐나다 선교사 전시실'이 지난 22일 캐나다 토론토 근교 '내한 캐나다 선교사 전시관'(대표 황환영 장로) 안에 문을 열었다. 내한 캐나다 선교사 전시관은 130년 전 한반도 북부와 간도 지역 복음화, 민족해방에 기여했던 180여 명의 내한 캐나다 선교사들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전시실에는 재일동포를 상대로 사역을 펼친 캐나다 선교사들의 면면을 담은 기록물과 유물 등이 전시됐다. 로버트 언더슨 목사 부부의 선교사 파송 증명서, 루터 영 목사 전기, 1973년 글렌 데이비스 목사가 부임한 후쿠오카교회 50주년 기념 팸플릿, 1963년 이후의 선교보고서철 등이다. 전시물들은 관장인 황환영 대표가 지난 1월 일본을 방문해 수집했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김병호 목사는 27일 "전시실에는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위해 싸웠던 선교사들의 흔적이 간직돼 있다. 후대에 선교의 발자취를 가르치는 배움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션라이프)

초특가 온라인 판촉물 전문기업

핀촉상인 US

us.87sangin.com

FREE SHIPPING!

※현수막, 단체T셔츠 주문 환영

신속 정확 착한가격

기독교 서적 및 일반 서적

45% OFF+tax

— 한국서적 —

HANKOOK BOOKS

기독교경영 전략

기독교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28)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인적자원과 성경적 원리(1)

인적자원과 성경적 원리(1)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성경적 원리들을 인적자원에 대한 영역과 성경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존재와 일에 대한 중요성과 보상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적자원관리는 '인사관리'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인적자원관리'라는 용어는 최근 우수한 회사의 전략적 경영계획의 한 분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안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의 크기가 커져가면서, 또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인사관리부서(인적자원관리 부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든 경영자는 그들의 인적자원을 관리하는데에 적극적으로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표)

범위	내용
모집	모집관련 홍보와 절차
선발	선발 절차와 결정
테스트와 총원	교육과 배치
계획과 예측	필요에 대한 예측
관계와 정보시스템	종업원 관계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관리
정책과 절차	정책과 절차에 대한 설계
건강과 안정 프로그램	건강과 안정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직무 분석과 임금 결정	개인별 혹은 그룹별 결정
보상	이익과 서비스를 포함한 절차
고과 서비스	형식, 절차의 설계
인적자원 프로그램	개발, 채택, 실행, 평가 방법
관리자	역할과 경험
결과에 대한 인사부서의 영향	성과, 동기부여, 출근, 배치, 전환, 직업건강과 안전
노동조합	조직, 단체 협상, 산업위원회, 정규 종업원의 참여
노동력	참여율과 노동의 공급
법적, 정치적, 경제적 발전의 영향	노동법, 고용 기회 균등법과 능동적 행동, 법적 판정, 그리고 통제 작용 지침과 관련

기독교경영의 모든 조직 활동에 하나님의 임재 필요
종업원은 기본적 필요 충족되게 충분 보상 받아야

A.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 위에 존재하시며,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이것이 기독교경영에 있어서 모든 조직과 활동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이유이다.

B.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받지 않은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다. 성경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의 영향을 받아 왔음을 가르치고 있다. 인간의 최상의 목표는 하나님과 교제 또는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것이다. 인간 욕구의 궁극적인 충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직업으로는 그러한 성취를 이룰 수 없다.

반면 그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인간의 직업적인 소명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적 욕구를 성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상시키고 반영하며 비추고,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된다(고후3:18, 고후

5:17). 그 결과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고, 도적질 하는 대신 일하고, 말로써 타인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며, 그들을 고립시키는 대신 함께 맞이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은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야 한다.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 형상에 따른 인간의 창조는 개인의 관한 것이 아니라 주로 공동체에 관한 것이다. 개인의 변화는 참된 공동체를 이룬다. 평화의 그리스도는 분열을 깨뜨리고, 그 자신이 친히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다. 인종적 장벽은 사라졌고, 성적 차별은 더 이상 없게 된다(엡2:19, 골3:11, 갈3:28).

어느 한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조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즉 확실한 거듭남이 있어도 완전한 실체가 드러난 것이 아니다(고전13:12, 요일3:2).

개인이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속의 존재이므로,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경영자들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의미에 비추어 계획하고, 조직하고, 이끌고, 검토하고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C. 관리들과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과 관리나 법이 요구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행5:29). 각 개인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롬14:12, 고전3:14, 벰전4:5).

D. 종업원들은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신명기 25장 4절에는 "곡식 따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다. 종업원들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보상 받아야 한다(눅10:7, 딤후5:18). 또한 가난한 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잠언 14장 31절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공평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라고 하였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잠14:21, 잠22:16, 잠22:22, 약2:6).

그러나 종업원들이 돈을 사랑하도록 권장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마6:24, 딤후6:10).

dr.jameskoo@yahoo.com

독/자/투/고

유명선 장로
(전 지오텍 엔지니어)

사도행전적 선교를 하는 K씨...

이 글은 유명선 장로(은혜한인교회)가 가까운 동료의 평신도 선교사역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이 사역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본지에 전해왔다[편집자주].

시간과 돈(물질)에 자유스러운 신앙 동료 K씨가 있다. K씨는 4개 업소를 운영하며 직원을 두고 문제가 있을 때나 찾아가고 가끔씩 업소를 돌며 수금을 하는 것이 그의 일과다. 미국군대를 다녀왔고 공무원 생활 30년에 신학공부도 마쳤다. 그는 교회 선교부에서 일하며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람을 만나면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도울 일을 찾고 구제하는 일에도 앞장서 왔다. 때때로 저녁 6시에 나에게 전화를 해서 Newport Beach에 바람도 쏘고 저녁도 먹으러 가자고 부르기도 하고 이른 아침에 전화해서 McDonald's에 커피 마시러 나오라고 하기도 했다.

K씨는 10여 년 전에 교회의 단기 선교팀을 따라 1국의 단기선교를 갔었다. 그곳 현지에서 선교 팀을 안내하며 통역을 해주던 현지인 사역자를 만나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고 연락을 취하다 다시 그와 함께 1국 전도여행을 하게 되었다. 함께 여행을 마친 후 K씨는 그를 지역 선교지도자로 세워 놓고 돌아와 후원하게 되었다. 그 후로 교인이 늘어나고 사역자/교역자들이 더 세워 지면서 마을마다 교회도 여럿 지어 주었고 따라서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게 되었다.

K씨는 본 교회에도,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1년에 3-4차례씩 현지를 방문하면서 매년 보통 봉급자의 일년 연봉 이상을 그 지역 선교사역에 쓰고 있다. 단기선교와 그 후의 현지 실상, 물질과 후원을 통한 현지 선교사역의 여러 문제점 등을 보았고 잘 알기 때문에 K씨는 철저하게 현지 사역을 관리한다고 한다.

1국은 공산주의 체제로 종교의 자유도 없으며 집회를 일체 허가 하지도 않아서 모일 때마다 조심스럽게 친교모임처럼 만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데, 그래도 매년 교인들을 모아놓고 소규모 행사(약식 TD 사역, 의료, 안경 사역, 성찬식, 세족식 등)를 해오고 있다.

노래도 잘하고 기타리스트(Guitarist)인 K씨는 지난 2016년에는 갈 때마다 가져갔던 기타(Guitar)를 다 모으고 키보드(Key Board) 12개와 음악인 2명을 데려가 함께 일주일 동안 "뮤직 페스티벌(Music Festival)을 했다고 한다.

각 지역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차출해 30여명을 모아놓고 예배 시에 반주하며 찬양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음악과 노래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마지막 날에는 뜨겁게 찬양 축제로 마쳤다고 들려준다.

금년 7월에는 사역자와 교인가족 30여명을 모아 부부학교(Seminar)를 했다고 한다. 그 나라 말로 번역된 교안과 많은 선물을 준비해갔다. 집회계약으로 10여 플씩 3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데,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들의 삶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번 방문 기간에는,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비밀리에 보급하고 있는 7명의 미국인 선교사를 만났다고 한다. 열악하고 희망 없이 살고 있는 그 나라 외딴 지역에도 벌써 부대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K씨는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머리 위로 쏟아져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넘친다고 고백한다.

그는 매일 QT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언제나 경건한(godly) 생활을 추구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검소하게 살기를 노력하며, 그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딤후4:8, 6:5)고 한다.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시고, 바다를 뒤 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렘31:35)의 능력을 믿고 그 나라의 체제가 무너지고 개방되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그는 스마트폰으로 현지와 원격 사역상담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

오는 10월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K씨는 "신앙생활 때문에 군 고위직에서 쫓겨나 여러 해 감옥생활을 하고 나온 현지 원로 목사와 같이 시골교회를 돌며 부흥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내가 알고 있는 K씨는 참으로 사도행전적 선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K씨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평신도 선교사역자 선교 전문가가 아닌가 싶다.

1국 선교사역에 관심 있는 분은 (626)252-63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강사: 라흥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Food in Bible(8)

과일 및 채소류 (Milk & Dairy Product) (상)



최성은 (Ph.D, RD, 퀸즈칼리지 교수)

성경에서 과일과 채소가 가장 먼저 언급된 다음의 창세기 구절에 의하면 과일과 채소는 하나님께서 창조 후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먹거리였다(“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창1:29).

식물학적, 사전상 과일(fruit)의 정의는 씨를 가진 나무나 다른 형태 식물의 먹을 수 있는 열매이다. 이 정의에 기준해 위의 구절의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과일나무로 해석할 수 있겠고 과일은 호도나 아몬드 같은 너트(nut)류도 포함할 수 있겠다.

trees and open flowers) 형상을 아로 새겨놓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과일이 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수가 6장 3절에서 나실인은 포도로 만든 산포(포도주, 초,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나, 신명기 24장 20절에서는 감람나무를 떨거나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감람과 포도의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법이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과일이 비유와 은유의 대상으로 사용되고(야7:9; 호9:10) 여섯 번째로는 저주와 축복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지거나(신28:40, 8:8) 일곱 번

과일과 채소는 창조 후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먹거리 과일인 사람/도시 이름, 장식, 법 대상, 은유 비유로 사용

성경 속의 과일

히브리(Hebrew) 성경학자인 Dr. David Moster에 의하면 과일들은 다음의 8가지 측면에서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한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과일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8장 6절의 ‘달마(Tamar)’는 ‘대추(date)’란 뜻이고 역대기 2장 43절의 ‘담부아(Tappuah)’는 ‘사과(apple)’의 뜻이며 사무엘하 4장 2절의 ‘림몬(Rimmon)’은 ‘석류(pomegranate)’의 뜻이라고 한다. 두 번째, 과일은 수많은 도시와 성읍의 이름으로 쓰여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11장 21절의 ‘아남(Anab)’은 ‘포도(grape)’를 뜻하고 여호수아 15장 32절의 ‘림몬(Rimmon)’은 ‘석류(pomegranate)’를 뜻하며 여호수아 12장 17절의 ‘담부아(Tappuah)’는 ‘사과(apple)’를 뜻함이다. 세 번째로는 과일의 이미지가 장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8장 33-34절에서 아론의 제사장 의복에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pomegranate)를 수놓았고 열왕기상 6장 29절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내외소 사랑 벽에 종려와 핀 꽃(palm

tree는 가르침을 위한 비유의 대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잠27:18; 겔18:2). 마지막으로 과일이 식품으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민수가 13장 23절에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식품(포도, 석류와 무화과)으로 언급된 것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아내, 하와가 먼저 먹어서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된 선악과로 언급된 것이다(“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 지라”, 창 3:6). 이렇게 8가지 방면으로 과일이 다르게 사용된 것을 보면 과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식품 이상의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과일 중 포도(grape), 올리브(olive), 대추(date), 무화과(fig), 석류(pomegranate), 아몬드(almond) 이 6가지 과일이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며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 과일로 여겨지고 있다. 포도(grape)는 가장 중요한 성경 속의 과일로 생각되는데 다음 ‘포도주(wine)’ 편에서 더 고찰될 예정이므로 본 글에서는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올리브(olive) 나무는 천천히 성장하

지만 오래 사는 상록수로서 지중해성 기후에 고유하게 적응한 식물이다. 올리브는 그의 열매로서 성경에서는 ‘감람’으로 언급되고 있다. 올리브의 최초 이용 목적은 의료용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연소시 매우 우수한 조명 능력 때문에 고대 기름램프의 원료로 올리브유가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리용이나 드레싱(dressing)으로도 사용되어왔고 지금까지도 지중해지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리유가 바로 올리브유이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용도들과 관련하여 ‘비유’용법으로 ‘감람’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출27:20; 사9:8-11; 롬11:17, 24). 대추(date)는 성경에서 종려나무로 언급되는(신34:3, 시92:12) 팜 트리(palm tree)의 달콤한 열매로서 성경에서 언급되는 과일 중의 대부분은 원료로 생각되고 있다(대하31:5). 이 종려나무는 깊은 뿌리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관개시설(irrigation)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에 늘 물이 있는 오아시스 주변에 자리 잡고 있고 이를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출15:27). 그래서인지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시냇가 나무의 열매는 대추(date)로 생각되고 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무화과(fig)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common fig이고 다른 하나는 sycamore fig이다. Common fig는 다음의 성경 구절들에 나와 있는 무화과들로 생각되며(“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신8:8; 왕상4:25; 욥2:2; 마24:32; 막13:28; 눅21:29-30; 막11:13, 20; 눅13:6), Sycamore fig는 다음의 성경구절에 언급되고 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sycamorefig tree)를 재배하는 자로서”(암7:14).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sycamorefig tree) 같이 많게 하였더라”(왕상10:27). cse1001@gmail.com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왕상4:1-4)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돼 중요한 내각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브나야는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왕의 초대 군대장관이 된 이유는 1)맡은 일에 딱 맞는 대를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는 뜻은 늘 내 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2)그리고 중요할 때 마다 꼭 처리해야 할 일을 먼저 용맹스럽게 처리했습니다.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인 것은 모압에서 가장 힘센 사람 둘을 처리함으로써 나라를 살렸습니다. 위험한 환경에까지 내려가서 사자를 죽이고 장대한 애굽 사람을 막대기 하나로 가서 애굽사람의 손의 창을 빼앗아서 죽였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용맹스럽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화 브나야는 군대 장관이요(왕상 4:4)

계속해서 브나야 군대장관의 초대 장관이 된 이유를 살펴해보도록 합니다. 왕상1장8절을 보면, 브나야는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나라의 일꾼은 충성될 뿐만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36, 37절에 보면 브나야는 다윗왕과 솔로몬왕이 잘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위험 속에서도 용맹스럽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 그리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모습과 충성으로 풍성한 결실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수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요(왕상4:5)

솔로몬왕과 그의 나라의 행동함은 적재적소에 귀한 일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세 직분이 나오는데 첫째는 관리장이요입니다. 이 관리장은 7절에 나오는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는 관장들의 총대장입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가 열두 관리장을 잘 관리하고 지휘함으로써 왕과 왕실의 식물이 늘 풍성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 중에 교회의 살림이 늘 든든하게 하고, 사역을 할 때 늘 막힘이 없이 풍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그러한 관리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나라의 사역을 위해서는 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고를 잘 관리하는 정치가와 같은 성도가 세워져야 합니다.

목 나단의 아들 사뫼는 대신이요 왕의 벗이요(왕상4:5)

두 번째 직분은 “대신”입니다. 이 사람도 나단의 아들 사뫼입니다. 사람이 재정적으로 튼튼하게 뒷받침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왕의 친구가 될 사람, 즉 왕에게 좋은 말, 위로되는 말, 그리고 힘이 되는 말을 함으로써, 왕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재정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리

금 아리살은 궁내 대신이요(왕상4:6-21)

세 번째 직분은 “궁내 대신”입니다. 궁내 대신은 사실상 왕궁의 살림을 도맡은 관리자를 말하는데, 그 전에는 필요 없었던 사람인데 솔로몬왕 때는 너무 나라가 부유하고 넘쳐나니까 관리장 외에 특별히 왕궁의 살림을 잘 돌보는 정치가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 마지막으로 “감역관”입니다. 감역관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입니다. 다윗왕 때부터 계속 일을 잘 감당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솔로

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매(왕상4:20-21)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찬란하고 흥성한 축복을 받은 솔로몬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지 지혜를 구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부여주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흥성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세상에서 얻는 축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문과 그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에 기초를 든든히 세운 후에 적재적소에 충성된 일꾼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진정 정치가와 같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로 인해 솔로몬은 블레셋 사람과 애굽 사람까지 다스리게 됐고 유대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게 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할렐루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international churches with columns for church name, pastor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Churches include Kumnan, Ddunhan, Roman, Saeteneun, Seungmun, Seungsil, Seungil, Sujeong, Seungdo, Siyeon, Shin, Shincheon, Shinchon, Anam, Yangok, Wangseong, Jangwe, Juang, Jungdo, and Cheongju.

“교계선거 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향과 후보 자격”

— “프레스 ABC” 공개방송 내용 정리

지난달 19일 첫 방송을 실시했던 “프레스 ABC”에서 개진된 교계 선거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본다. “프레스 ABC”는 아멘넷(대표 이종철), 복음뉴스(발행인 김동욱), CSN(사장 한은경) 등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 토크쇼로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주제 “교계선거 제도의 현황과 방향”은 선거철에 준해 결정된 주제였지만 올해 뉴욕교협은 단독 후보 출마로 선거 열기는 일단 한풀 꺾였다. 그러나 단독후보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 총회 석상에서 후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교협은 오는 10월 22일 열리는 총회에서 선출될 후보자들에게 서약서를 받았다. 이는 수년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에게 해당된다.

“입후보자의 권리상실”이라는 제목 하의 서약서는 입후보자는 ①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식사접

대를 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공적 모임의 행사순서(축사, 환영사 등)를 맡을 수 없다 ③회원의 교협회비, 총회 등록비를 대납할 수 없다 ④상대 입후보에게 출마포기를 중용하며 금품, 물품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상대 입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언비어, 소문 및 비방을 할 수 없다 ⑥회원 또는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후원금 찬조금 등 금품을 출 수 없다 ⑦등록한 금액은 어떤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⑧선거운동 기간은 10월 1일부터 정기총회 당일까지 입후보자만 할 수 있다(단 문서통신만 허용).

방송은 이번 주제선정 이유와 현재 뉴욕과 뉴저지 교계의 선거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지만 본지는 이종 교계선거의 올바른 개선 방향성과 후보 자격에 관한 부분만 정리해 보도한다.

사회: 임은숙 CSN 부사장
토론자: 아멘넷 이종철 대표, 복음뉴스 김동욱 발행인, 김원기 목사(전 뉴욕교협 회장), 이병준 목사(전 뉴저지교협 회장)



공개 토크쇼 “프레스 ABC”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철 아멘넷 대표, 김동욱 복음뉴스 대표, 김원기 목사, 이병준 목사, 임은숙 CSN 부사장.

임은숙: 교계선거의 올바른 개선 방향성은 무엇인가?

이종철: 뉴저지는 정비해야겠지만 뉴욕은 더 이상 선거관련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 운영자가 더 중요하다. 법이 아닌 운동이 필요하다. 불법선거를 금하기 위해 교계 지도자들과 언론이 앞장서야 한다. 당선됐어도 불법선거

법은 사고 방지(예방) 위해 꼭 필요...지역 현실에 맞도록 제정 복음적 비전 갖고 섬기는 자세로 관계성 회복하는 단체장 회기를 이용해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후보는 뽑지 말아야

했다면 탈락시켜 경종을 울려야 한다.

김동석: 법이 만드는 아니지만 법은 사고를 방지(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제도는 사고에 대비해서 정비해야 한다.

김원기: 교협의 기본은 목사가 아니고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닌 교회(paper church)가 문제를 일으킨다. 제대로 자립한 교회는 금권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실행위가 과감히 정리해 가야 한다.

이병준: 뉴저지는 뉴욕과 달리 법은 정화가 안됐지만 사랑방처럼 잘 움직이고 있다. 미리 강화하면 법안에 강하게 되므로 뉴욕과 비교하지 말고 뉴저지 실정에 맞춰 나가면 된다.

임은숙: 교계단체의 회장이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이며,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하는가?

이종철: 회장의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목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회장은 미주한인교계에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선지자적인 리더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힘들어 도 내가 앞장서겠다’, ‘성경대로 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이를 계속 해서 외치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한다.

김동욱: 교협회장은 기획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한두 가지라도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 공약이 가장 적은 후보가 좋겠다. 목사회는 친목단체이므로 무단하고 회원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좋겠다.

김원기: 뉴욕교협은 일이 많다. 봉사적이고 희생적 자세를 가져야 하고 중형교회의 활동성 있는 목회자가 나서야 한다. 추대되는 것도 좋다.

이병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지도자에 동의한다. 협력이 안 되는 것

이 아니고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이다. 첫째 지도자는 복음적 비전을 갖고 관계성을 회복하며 둘째, 지나친 보수, 지나친 보수가 아닌 복음적 리더십을 가져야 하며 셋째, 섬기는 자세로 관계성 회복을 하며 넷째, 연합 사업이므로 모든 교단을 아우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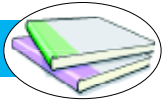
임은숙: 완벽한 후보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어떤 후보를 뽑지 말아야 하는가?

이종철: 10가지도 넘게 말하고 싶지만 딱 한 가지를 말한다면 돈 쓰는 후보는 뽑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하든 그 돈을 회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원기: 회기를 이용해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후보는 뽑지 말아야 한다.

(유원정 기자)

새 책 소개



“신·구약 성경대학문제”

저자 홍춘만 목사

홍춘만 목사(샌디에고 한인 연합장로교회 원로)가 이민목회 32년 동안 출제했던 성경문제를 정리해 최근 ‘신·구약 성경대학문제’를 펴냈다.

저자는 서문에서 “본서는 복음적 내용이며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암송하도록 했고 문제의 모든 답은 성경 안에서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출제했다”며 “1년에 한번 이상 신구약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출제했고 성경을 28장정도 공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성경읽기와 성경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출간 목적을 말하고 있다.

한편 UCSD-CA-의과대학 교수 및 미세수술 연구소장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이선 박사의 자서전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들’에서 “홍춘만 목사의 성경문제지로 1년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문제를 풀며 신구약을 통독했다”는 고백을 추천사에 옮겨 놓아 이 문제지를 통한 신앙성장의 본을 엿볼 수 있게 했다.

본서는 성경 개역개정판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 웰드미션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

“구원의 확신 갖고 온전한 성도되기 바라는 마음” 에서 출간

특히 본서의 제목을 ‘성경대학문제’라고 붙인 것은 교인 대부분이 대학 졸업이상의 연령들이고 또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모든 학문 가운데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의미라며 이 교재를 통해

사용했으며 신약 27권과 구약 율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가 실려 있다. 부록으로 해답을 실었다.

홍춘만 목사는 서울대 문리과대학 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3년 수료,

로교회, 샌디에고 한인연합장로교회 등 미주 이민목회 32년의 경력을 갖고 있다.

본서 구입은 미주내 기독교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성자 기자)

(2면에서 계속)

건강한 우정은 충만한 삶, 특히나 목회자의 안위에 결정적이다. 이 분야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피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목회자의 50%는 5년을 버티지 못한다.

70%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목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느꼈지만, 3년 후, 오직 50%만 여전히 소명을 받았다고 느꼈다. 개인적으로 새로움을 유지하는 것은 기술이자 과학이고, 정말 중요하다.

피로가 닥칠 때, 목회자는 반은 비어있는 모습으로 비취질 뿐만 아니라, 더럽고 오염됐고 마실 수 없어 보인다.

6. 좌절과 실망

실망은 여러 형태로 온다.

교인수가 작은 목회자에 대한 평균 보수는 3만5천과 4만 달러 사이다. 이 사례금 범위의 목회자는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적을 수 있다. ‘성공’의 잣대로 보면 어려운 목

회의 영역이 많다. 목회자는 스스로를 거칠게 다룰 수 있다. 목회자는 잘한 일과 훌륭한 노력이 항상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 영역에서 일을 한다. 많은 목회자는 열심히 일하지만 어떤 ‘미지의 요인’을 놓치고 있다. 이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신실한 신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설교에 크게 만족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잘 안 된다. 좌절감을 준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가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효과적인 예배 경험으로 사람들을 이끌지 못하는 예배 인도자와 같은 것이다.

조금 지나면, 인도자는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게 된다. 마침내 목회가 영향을 받아, 어떤 교회 인도자가 나간다. 상황이 진전돼 몇몇 최대 기부자가 떠난다.

교회는 돈이 필요하지만, 목회자는 돈에 너무 많이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돈에 관한 것은 아니었지만, 돈에 관한 것이 때버린 것이다. 이런 모든 일에 압도될 수 있다.

매해 4천 개의 새로운 교회가 문을 열지만 7천 개가 문을 닫는다. 작년에 1천7백 명 이상의 목회

자가 매달 교회를 그만 두었다. 하루에도 3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 50%의 목회자는 너무 낙담돼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목회를 떠날 것이지만, 생계를 책임질 다른 길을 찾지 못했다. 45.5%의 목회자는 휴가가 필요할 정도까지 우울증이나 소진 상태를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이것이 모든 목회자의 경우는 아니다. 사실, 필자가 알고 있는 많은 목회자는 이런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

*필립 와그너 목사는 LA 오아시스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Generositywater.org’의 창시자이다. 오아시스교회는 혁신적이고 다양한 인종이 출석하는 교회이고, 주로 20대와 30대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소외된 자들, 특히 고아와 과부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유명하고, 현재는 이들을 위한 깨끗한 물 자급운동을 하고 있다. 필립 와그너와 아내 홀리는 1984년에 10명의 성도와 베벌리힐스에서 오아시스교회를 설립했다. 현재는 4천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www.philipwagner.com/blog)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Glory to God”



시온복음선교교회

제 32주년 기념 찬양 감사예배

노숙자, 빈민구제, 구호 회복을 위한 치료 및 섬김을 위해 32년째 달려온 시온복음선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32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꼭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 60:1)

일 시: 2018년 10월 6일 (토) 오전 7시, 오후 3시

장 소: 시온복음선교교회

Zion Gospel Missionary Church
3113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9

문 의: 323 - 734 - 7177, 213 - 703 - 5412, 213 - 858 - 6769

kimtae1986@gmail.com

대표 글로리아 김 목사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시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못 나라가 여호와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시편 102:12-16)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시편 132:13-14)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닳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에레미야 17:14)

